

碩士學位論文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온라인 여론전개과정 연구

- 미디어다음 토론사이트 '아고라'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吳 世 旭

2009 年 2月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온라인 여론전개과정 연구

- 미디어다음 토론사이트 '아고라'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敬 浩

吳 世 旭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吳世旭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2月

A Study On the USA Beef Syndrome and
Development of Online Public Opinion
- Focused on Mediadaum's Debate Site 'Agora'

Se-Uk Oh

(Supervised by professor Gyong-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9. 2.
195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8
1. 이론적 논의	8
1)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8
2) 인터넷과 여론의 형성	12
2. 선행연구 검토	16
1)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	16
2) 포털의 대중화와 ‘아고라’	20
3)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25
III. 연구 방법	29
1. 분석 대상 및 시기	29
2. 분석 시기	31
3. 분석 유목	31
4. 분석 방법	35

5. 신뢰도 검증	35
IV. 연구 결과	37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37
1) 조사기간 아고라 토론방 사용량	37
2)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게시글 수와 댓글 수 변화	40
3) 글쓴이 수와 처음으로 글쓴이 수 변화	44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48
1) 조사기간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특성	48
2) 쇠고기파동을 기점으로 토론 베스트 글 주제와 성향 변화	51
3) 토론 베스트글의 작성목적과 근거 변화	62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62
1)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아고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62
2)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아고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67
V. 결론 및 제언	77
1. 결론 및 논의	77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9

표 목 차

<표 1> 아고라 월별 순방문자 및 페이지뷰	3
<표 2> 토론 베스트글 주제	33
<표 3> 아고라 토론방 게시글 수 및 댓글 수	37
<표 4> 토론방 글쓴이 수와 처음으로 글쓴이 수	38
<표 5> 아고라 토론방 사용자 활동량	39
<표 6>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게시글수 변화	41
<표 7>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댓글수 변화	42
<표 8> 게시글 1개 당 달린 댓글 수 변화	43
<표 9>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을 한 글쓴이 수 변화	45
<표 10>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 변화	46
<표 11>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처음으로 글쓴이 수 변화	46
<표 12> 글쓴이 중 처음으로 글쓴이 비율 변화	47
<표 13>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소속 토론방	49
<표 14>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성향	49
<표 15>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작성 목적	50
<표 16>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근거	50
<표 17>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주제 변화	51
<표 18>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성향 변화	55

<표 19>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주제별 성향 변화	56
<표 20> 美쇠고기와 촛불집회 주제글의 성향	57
<표 21>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작성목적 변화	58
<표 22> 美 쇠고기와 촛불집회 주제 글의 작성 목적	59
<표 23>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한 글의 근거 변화	60
<표 24> 美 쇠고기와 촛불집회 주제 글의 작성 근거	61
<표 25>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주별 토론 게시글 수	63
<표 26> D-11주와 D-2주의 일별 토론 게시글 수	63
<표 27> 2월 25일과 27일의 토론 베스트글 특성	64
<표 28> 4월 8일~10일의 토론 베스트글 특성	65
<표 29>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주별 토론 게시글 수	67
<표 30> D+3주, D+6~8주, D+11~12주의 일별 게시글 수	68
<표 31> 5월 7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69
<표 32> 5월 29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71
<표 33> 6월 1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72
<표 34> 6월 8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73
<표 35> 6월 26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75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온라인 여론전개과정 연구

- 미디어다음 토론사이트 '아고라'를 중심으로

2008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뒤이은 '촛불 집회'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공간은 인터넷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인터넷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고라'라는 토론 공간이었다. 본 연구는 왜 '아고라'라는 공간이 주목 받았는가는 의문에서 출발해 온라인에서의 여론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아고라'라는 공간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기만 했던 공간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보았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 18일을 기점으로 전후 3개월씩 총 182일간 '아고라'에 올라온 토론 게시글 수, 댓글 수, 글 작성자 수, 처음으로 글쓴이 수를 일단위로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의 수는 급증하였는데 그 글에 대한 반응으로 달리는 댓글의 수가 글의 수에 비해 오히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고라'에 올라온 글들이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 글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그만큼 글의 작성자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누군가가 여러 개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글을 쓰고 있었다. 이는 '아고라'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사용량과 더불어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기간 '아고라'에 토론 베스트로 등록된 글 모두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같은 주제의 글이라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 등과 같은 이용자의 반응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비판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이 협상 타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 토론 공간에서 철저히 개인 경험에 바탕한 글이 더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매개로 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고라’의 사용량과 토론 베스트 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시기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식, 총선 등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 등에 의한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쇠고기 협상 청문회, 72시간 연속 집회 등 각종 사건 사고들에 따라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계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고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이전부터 부동산, 주식 등 실제 자신의 경제 생활과 연결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많았고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고라’가 쇠고기 파동 이전에 정치와 관련된 주제만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주제어 :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 아고라, 온라인 여론, 인터넷 토론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을 말한다. 집밖에서 공공 생활을 즐겼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치와 사상 및 일상의 작은 관심 하나까지 나뉘던 공간이다. 2008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이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토론의 성지’라는 이름이 붙은 ‘아고라’라는 깃발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아고라’는 미디어다음의 토론사이트 ‘아고라¹⁾’를 의미했다.

한국 사회는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터넷 인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김성태·오유원·박선영, 2007).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된 이슈가 직접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꾸준히 있어 왔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효순·미선이 사건²⁾이 전국적인 촛불 시위로 이어졌던 일, 2005년 1월 서귀포 부실도시락 사건³⁾이 결국 담당자의 직위해제까지 이어졌던 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의제를 제기했던 것은 젊은 과학자들의 인터넷 사이트⁴⁾였다.

전통적으로 수용자였던 일반 시민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었다. 기존 언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의제 설

1) <http://agora.media.daum.net>

2)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스)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호순(14.조양중2년)양과 심미선(14.조양중2년)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미 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계속해 이어진 촛불시위로 결국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었다.

3) 2005년 1월 8일 제주도의 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가 서귀포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도시락의 사진과 함께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후 이것이 포털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는 또 결식아동 도시락 개선 네티즌 청원운동으로 확산되었고(<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75&cateNo=241&boardNo=175>) 이것이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담당자의 직위해제까지 이어졌다.

4) 생명과학 전문 인터넷 사이트 브릭(<http://bric.postech.ac.kr>)

정을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정보에 접근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민들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정치적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직접적으로 공공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권혁남, 2006 ; 박선희, 2004 ; 최영, 2002). ‘아고라’는 이렇듯 직접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모여 ‘장’을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한 언론보도를 인용한다.

“2008년 아고라는 2002년 미션·효순양 사건이나 2004년 탄핵사태 때 형성된 사이버 공론의 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과거에는 소위 ‘논객’들이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글을 올리면서 여론이 만들어졌지만 완전 개방된 공간인 아고라에는 10대 청소년, 30대 아줌마, 해외교포 등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⁵⁾

이전보다 더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이 ‘아고라’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들의 저변이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토론하는 것은 여론 형성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견의 집합체인 여론은 각 개인들의 사고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들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형성된다(음수연, 2003).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의견과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명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점점 확신을 잃어 의견 표명 의지가 줄어들고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Noelle-Neumann, 1980). ‘아고라’라는 토론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여론으로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 글의 특성상 찬성 반대가 명확히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아고라’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한 중학생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5) 경향신문 5월 27일자 “저항의 메카 ‘다음 아고라’... 떠오르는 ‘인터넷 공론장’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261825485&code=940702)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수입이 중단된 적 있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위험하다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조·중·동에서 난리를 쳤어요. 학교에서 신문읽기 수업할 때 그런 기사 본 기억이 나요. 그때 광우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략)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터넷이 더 믿을 만해요. 인터넷에는 모든 자료가 다 올라오잖아요. 미친 소 반대 글뿐 아니라, 찬성하는 글도 많이 올라와요. 저 그거 다 읽어보고 나름 판단한 거예요.”⁶⁾

인터넷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토론 사이트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여러 글을 읽은 후 나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정보를 얻는 곳으로 활용한다. 전통적인 기존 언론의 의제설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온 촛불 집회참여가 다시금 언론에 의해 의제화된 것이다.

김성태·이영환(2006)은 이전까지 발생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 ‘역의제 설정’이라는 시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아고라’에서 비롯된 현상은 그 모델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여진다. 스스로를 ‘아고리언’⁷⁾으로 통칭하는 이들은 기존 언론을 불신하면서 ‘역의제설정’⁸⁾ 내용까지 통제하려 한다.

<표 1> 아고라 월별 순방문자 및 페이지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UV	6,710,946	6,655,504	7,873,864	7,935,074	10,010,340	9,640,281
PV(×1,000)	260,632	212,163	324,762	282,726	647,158	1,385,288
인당 PV	38.8	31.9	41.2	35.6	64.6	143.7

(출처 : 코리아 클릭)

6) 시사인 35호. “요즘 어른은 세상을 몰라요”(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

7)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토론을 하는 네티즌을 통칭하는 말.

8) 촛불집회 현장서 참가자들은 일부 보수 신문 등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였다. 한겨레 신문 6월 4일자 “‘조중동’ 구독 거부에 광고주 압박까지”(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0954.html)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고라’의 방문자수와 페이지뷰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4월 말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고라’의 월간 순방문자수(UV)는 4월 793만명에서 5월에는 1천만명 이상으로 한달 새 약 25% 정도 증가하였다. 월간 페이지뷰도 4월에는 2억8천만건이지만, 5월에는 6억 4천7백만건으로 약 2.5배 상승하였다.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후인 6월에는 10억3천8백만건으로 4월에 비해 약 6배 정도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급격히 늘어난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기간 ‘아고라’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다른 토론 사이트가 있고 다른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도 왜 ‘아고라’가 유독 주목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아고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갑자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고라’는 그 이전부터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일정한 흐름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폭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각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아고라’의 사용량 변화와 토론 내용 변화를 살펴 보려한다. 이를 통해 ‘아고라’라는 토론 사이트를 통해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연구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통제 요건을 가미하면서 현상에 대해 한정된 추측을 한 것이 많았다.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를 위한 변인 조작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통제 조건을 가능한 줄여 실제로 벌어진 현상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인 탐구를 실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변인을 가능한 줄이고 ‘아고라’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최대한 탐구해 볼 것이다.

단, 본 연구는 ‘아고라’에서 일어났던 커뮤니케이션과 그 여론의 전개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고라’에서 형성된 여론이 어떻게 오프라인에서의 ‘집회’와 ‘시위’로까지 이어졌는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은 선행연구 검토로 같음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미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아고라’가 온라인 토론 공간으로 주목 받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아고라’의 사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왜 ‘아고라’가 주목 받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1차적으로 ‘아고라’의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의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아고라 사용량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앞서 살펴 봤듯이 ‘아고라’의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는 전체적인 사용량 통계일 뿐이지, 사용자들이 실제로 토론방에 글을 많이 써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올라온 게시글을 읽기만 많이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토론 사이트의 특성상 올라오는 토론 글과 함께 각각의 토론 글에 붙는 댓글을 통해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게시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와 게시글에 붙은 댓글의 수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1. 각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와 댓글 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토론방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의 작성자는 모두 다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 수십개씩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1개의 글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고라’에 많이 접속하였다. 이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접속한 것인지 아니면 글을 읽기 위해서 접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각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 뿐만 아니라 게시

글의 작성자 수와 그날 처음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 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문제 1-2. 각 토론방에 게시글을 쓴 사람 수와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 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같은 수치들은 전체적인 사용량만을 나타낼 뿐 어떠한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 사람들이 ‘아고라’를 주목한 결과 값에 불과할 뿐 왜 주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론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수만개씩 올라오는 모든 토론 글을 분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추천수와 댓글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아고라’의 토론 베스트 글로 분석대상을 한정해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주로 어떤 내용들을 토론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어떤 내용이 공감을 얻고 자주 논의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쇠고기나 촛불시위만을 대상으로 토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아고라’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시글들의 성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1. 토론 베스트 글의 주제와 성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아고라에 올라온 글이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에 그쳤다면 이러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시글이 의견인지 욕설인지 정보제공인지 등 유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면 글이 주장하는 근거를 믿

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문제 2-2. 토론 베스트 글의 유형과 근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들로는 각 해당 부분이 변화하는 경향 정도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표 1>에서 보듯이 아고라의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급등하였다. 연구문제 1, 2의 결과도 <표 1>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 급격한 변화에 작용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알기 힘들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아고라 사용량과 토론 베스트 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는 일별로 수집되었다. 세밀한 분석을 위한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연구문제 1, 2의 결과를 집계하여 주별 일별로 분석하면 급격한 변화가 보이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사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어떠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슷한 기준에 의해 묶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1)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론장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Habermas, 1990). 초기 이 영역은 교양 있고 이성적이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들을 기반으로 한 부르주아 공론장으로서, 특히 부르주아 언론을 매개로 절대주의 국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임지택, 2003, 16쪽). 하지만, 점차 자본의 권력이 유입됨에 따라 공론장이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는 공적인 생활 영역의 ‘재봉건화’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공론 영역의 재봉건화는 시민사회의 위축과 함께 언론이 그동안 수행해 온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목적론적 합리성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공론장의 복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 상황’을 강조했다. 진정한 공론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참여와 토론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가 18세기 카페나 살롱 문화에서 ‘신분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홍성구, 2001).

하지만, 하버마스가 상정했던 ‘이상적인 담론 상황’은 애당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특히 시장의 확대, 국가개입 등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상호침투가 일어나, 사적 개인들의 입장에서의 합리적, 비판적 공론장 없이 상호침투가 확대, 강화되며 공론장 자체가 이해관계의 충돌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김재현, 1996, 129쪽).

이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 공론장은 현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광고와 홍보활동이 강화되면서 공적인 공간에서 대화와

토론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장은 본래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버마스의 표현에 따르면 ‘공론장의 재봉건화’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의 재봉건화’는 과시적 공론장이 부르주아 공론장을 다시 잠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대중에게 과시적으로 개방되고 그 의지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론장의 재봉건화에 기여한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근간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공론장은 대중의 편에 서서 권력을 탈중심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 없는 토론에 의해 ‘공중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국가의 사회 통제를 억제하기 보다는 탈정치화된 대중의 충성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은규, 2003, 13쪽).

오늘날의 매스미디어는 참여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르주아 공론장을 과시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공론장의 대표적 매체인 신문과 방송이 사영화되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들이 상당 부분 배제되었다. 즉, 사적 자본의 공적 영역 사유화로 말미암아 공론장의 ‘재봉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박춘서, 2006).

미디어 공론장의 재봉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뉴스 전달자들의 관심 대상이 대중 전체로 확대되면서 ‘내 이웃의 뉴스’를 잃기 시작했다. 뉴스 교환의 참여자로서 이웃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마저 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생산자와의 적극적인 토론이나 논쟁도 불가능하게 됐다. 대중 미디어는 소비자의 무관심을 조장하고, 정치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제시하였으며, 포장 판매되는 편의적 사고를 공급하였다. 즉, 미디어는 공공의 의지를 표명하기 보다는 공중을 조정하였던 것이다(김익현, 2008).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은 인터넷상에서 공론장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쌍방향성, 시공간의 초월 등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무엇이든 게시할 수 있고 그 게시물은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지지, 동의, 반박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한 개인은 그 자체로 사회적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공동체는 개인에게 기존 미디어 이용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작용하며, 사회적으로 새로운 공론영역의 복원을 뜻한다 (배상은, 2003, 30쪽).

이에 따른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대안적 공론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인터넷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언론구조에 인터넷신문이라는 새로운 언론매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언론 공론장의 전체적인 폭을 확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영역에서는 개방성, 상호작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언론을 일구어내는 데 일조했다(김은규, 2003).

무엇보다 대안적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은 주로 탈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시공간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익명성과 탈매개성, 탈대중적 특성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상정된다(강상현, 2000).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론 형성 과정 역시 개방적인 구조를 띠게 된다. 인터넷은 단일화된 공론장이 아니라 다수의 공론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홍성구, 2001).

이러한 인터넷과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간의 관계 확장, 평등한 대화 상황,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낙관론적 입장과 언어폭력, 음란물, 폭력적 내용의 확산, 소외현상, 정보격차 등을 강조하는 비판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인터넷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공간은 현실에서 보다 나은 삶을 실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곳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중적 공론의 장'이 확립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호정보와 의견이 교환되고 집합되어짐으로써 여론이 형성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여론이 집단적으로 발현되어 공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력을 발휘한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정보는 다수에게 공개됨으로써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적인 정보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공적 정보는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형성한다(오연주, 1996).

민경배(2006, 66~77쪽)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방향적·수평적 의사소통이 공론장 개념과 부합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인터넷 공간의 의사소통은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제약 요건을 넘어서 수평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셋째,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참여자의 발언이 가감이나 침삭 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현실세계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대안적 공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기술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인터넷은 기술적 속성상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로부터 우회하기 쉽고 언론매체를 수립하는 데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도권화 된 거대 미디어에 대항하는 작은 미디어로서의 민주적 잠재력을 갖는다(홍성구, 2001).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 형성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쉽게 지나치기는 어렵다. 우선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견 표출을 가능케 하는 익명성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행해지는 부적절한 표현 양식의 남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도 이러한 공론장 성립의 저해요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서 드러나는 기본가정이 수용자를 두 그룹 즉, 여론과 동일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으로만 구분해서 수용자의 태도나 행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정상현, 2000).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공중’에게 평등한 접근을 허용하며 ‘대안적’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 공론장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18~19세기에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은 남성들만의 자유주의적 공론장으로 스스로를 보편적 계급으로 본 부르주아가 관료적 엘리트 및 평민계층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구분짓기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박선희, 1998). 즉,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과정에는 ‘권위의 재확립’과 ‘배제의 관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때문에 인터넷이 ‘대안적’ 공론장으로서 사이버-유토피아는 아니라 할 수도 있다 (홍성민, 2004).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개적 공론장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고립된 모임과 토론의 마당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nstein, 2007). 특히 지나친 내적 분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따라서 파편화된 공중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익현, 2008). 아울러 하버마스가 부르주아 공론장의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한 것처럼 온라인 공론장 역시 상업화로 인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홍성구, 2001).

2) 인터넷과 여론의 형성

여론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 정의가 시도되었고, 일반적으로 여론이란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 전체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하여 가지는 공통적인 의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조재권, 1984).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한 사회를 형성하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인 다수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다수가 공동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특성의 쟁점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특성의 문제가 매스 미디어나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시화되고, 넷째, 다수가 쟁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세경, 1993).

여론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노엘레-노이만(1980)은 여론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이성적 토론에 근거한 ‘양식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의 판단’이라는 의미이다. 둘째는 이보다 좀 더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따라야 하는 압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론은 “개인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정의된다. 노엘레-노이만(1980)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외적 환경을 관찰하고 있으면, 여론은 제재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통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적인 상황은 개인에게 판단해야만 할 것으로 작용하며,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압력을 부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을 표명하고 침묵을 지키는 두 가지 행위는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여론이 형성될 때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어떤 의견 행동이 상승세인지 하향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엘레-노이만(1980)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을 경제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여론 세계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 데 참여야 하는 비용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됨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들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위 사람들이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로 대면적 일차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자신의 구성원이 집단의 규범 혹은 집단 내 다수 의견에 동조할 경우 보상하는 한편,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과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박은미, 2005).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장기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의 고립은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삶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절의 경우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평판이 따르며, 단절을 지속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관규, 2002).

그러나 인터넷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고립됨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에서 자유롭다. 인터넷은 대면적 일차 집단과 달리 익명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으며, 신분의 노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보장된다. 인터넷 공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적 상황에서 대인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익명의 상대에 대한 단절 역시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면 쉽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제재가 거의 따르지 않는다(김관규, 2002). 인터넷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아이디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이트로의 공간 이동을 통해 고립에 대한 부담

이나 기존 관계에서 형성된 평판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즉, 인터넷에서의 인간관계는 현실세계의 그것처럼 고립이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공간과는 달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현실 공간만큼 고립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여론 지각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침묵의 나선이론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의견표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정체성 역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지 고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혹은 고립시키는 사람들 모두 뚜렷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한혜경, 2003).

이처럼 고립이 현실 공간만큼 강력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고립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립된다 하더라도 바로 새로운 관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 공간처럼 의견을 표현할 때, 사회적 규범과 예절을 고려해야 할 이유나 의견의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화나 토론 참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참여의 불균형성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김유정, 1998).

그러나 인터넷이 사회적 경계를 허물었고, 의견표명에 있어 대면적 관계보다는 집단이 끌어당기는 힘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개인이 의견을 나타낼 때 심리적으로 대세를 따르려는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대세를 살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 설명하는 의견표명과 여론지각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나 주변 사람처럼 대인적 접촉이 있었던 존재뿐만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는 타자의 태도, 신념, 경험을 지각하고자 하는 비개인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박은미, 2005). 따라서 인터넷은 비록 개인적 영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을 수 있으나 비개인적 영향력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요인은 그들의 주위에서 어떤 견해들이 지배적이거나 우세해 가고 있느냐에 관한 개인들의 지각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스 미디어이다(Noelle-Neumann, 1980). 매스 미디어는 어떤 것이 그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이고 여론인지를 개인들에게 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인적 지지의 영향력은 매스 미디어의 그것과 반비례한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한 개인도 역시 침묵을 지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개인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한 대인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떤 견해가 지배적인가를 정의해주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차배근, 1999).

노엘레 노이만(1980)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 알기 위해 또는 '의견 분위기'를 평가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한다. 그녀는 매스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대중의 눈과 귀를 작용하는 것을 편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또 매스 미디어가 개인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누적성과 일치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누적성이란 시간과 미디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유사한 메시지의 반복으로서 단편적 메시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치성이란 사건과 사람의 이슈에 대해 미디어가 독점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신문, TV 등에 의해 분산되고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는 이슈나 사건도 매스 미디어의 한결 같은 목소리 때문에 획일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매스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도래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신문, TV가 지배적인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일치성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인터넷은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있어 획일성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강력한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스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비록 노엘레-노이만이 지적한 것처럼

누적성과 일치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사이트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미디어가 주장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사회적 받아들이기는 경향이 있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여론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혹은 매스 미디어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론은 이 두가지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은 여론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아고라’라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를 분석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

공중 의제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검증한 의제설정 이론은 1972년 맥콤즈와 쇼(McCombs & Shaw)의 채플힐(Chapel Hill) 연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들은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설정한 의제와 공중 의제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가 매스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스 미디어는 정치캠페인에서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McCombs & Shaw, 1972, p.177)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 간의 높은 상관관계만으로 공중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 즉 인과관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공중 의제가 미디어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쇼와 맥콤즈(Shaw & McCombs, 1977)는 197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Charlotte) 지역에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자료를 수집한 후, 시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약하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관한 증거를 보여줘 공중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미디어가 강조

해서 다루는 이슈에 따라 공중은 그 이슈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사량이나 위치를 통해서 그 이슈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어 공중 의제가 설정된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이 확립된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효과는 1920년 수동적 수용자에 대한 획일적이고 강력하며 즉각적·직접적인 효과를 상정했던 탄환이론에서 1940년대 제한효과이론과 2단계 유통이론 등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소효과 이론으로 급선회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소효과 이론이 매스 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태도 변화 등 직접적인 ‘심리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매스 미디어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 미디어가 강조한 이슈와 대상을 수용자 또는 중요하게 인지한다는 ‘인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소효과 이론을 퇴조시키고, 중효과 이론을 등장시켰으며 과소평가되었던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등장 이전까지, 의제설정 이론에서 수용자는 수동적 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고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수용자는 이제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의제설정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김성태와 이영환(2006)은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의제과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의 기능적 모델을 같이 제시했다. 이 모델이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의제 융합모델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적용을 설명하고, 기존 의제설정 이론의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일방향성을 여전히 전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정 이슈에 관련한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의 활동이 인터넷 언론과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설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터넷시대의 의제설정에서 일반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메시지 생산자로서의 기능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익현(2008)은 이러한 ‘역의제설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초 사이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황우석 사태⁹⁾를 꼽는다. 그는 줄기세포

9) 다른 측면으로 박재영·전형준·이규연·이진영 (2008)의 연구 “황우석 사건의 교훈 : 기자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과학보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인식하는가?”는 국내 종합지 과학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논문 표절 사건 보도를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를 전형적인 역의제설정 모델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주류 언론들이 연이어 오보를 쏟아낸 것은 고급 취재원의 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의제 설정 모델을 지나치게 맹신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다, 황우석 박사 측이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취재원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당시 의제를 주도한 것은 생명과학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인 BRIC이었다(김익현, 2008, 73쪽).

하지만, 역의제설정이 항상 기능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성수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사이버 공간의 의제 설정 과정을 분석한 박은희·이수영(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제는 기자나 전문 필진에 의해 가동되는 매스미디어 의제와는 달리 개인의 푸념이나 분개, 호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나열 등과 같은 ‘수다’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매스미디어는 사이버공간에서 의제의 확산 시기에는 침묵하거나 단순 보도로 일관하다가 의제 소멸시기에 와서 심층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도하려는 경향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의제가 설정되더라도 역의제 설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괴담’처럼 광우병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을 때 매스미디어는 침묵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난 2000년 때와는 달리 네티즌들은 매스미디어의 역의제 설정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촛불집회’라는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돼 오고 있다(박주현, 2008 ; 구교태, 2002 ; 김학수·오연호, 2003 ; 윤태일·심재철, 2003).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제설정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인터넷의 의제설정 기능연구는 기존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

통해 기자들이 얻은 교훈과 국내 과학저널리즘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봤다.

설정 기능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 차이는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와 경쟁하는 대안적 미디어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기존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콘텐츠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의 기술적 특징으로 말미암은 상호작용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설정 연구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 연구들은 대체로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미디어의 공간적 제약과 구별되는 사이버 공간의 방대함과 다양함으로 인해 웹 사이트에 대한 노출이 인터넷 미디어 의제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했다(윤태일·심재철, 2003). 연구자들은 이것이 미디어 의제를 측정하기 위한 인터넷 콘텐츠 분석이 기존 미디어의 내용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특정 이슈에 국한된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전통적 미디어와 인터넷을 포괄하는 연구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의제설정이 잘 발생한다고 평가받는 정치 및 선거 캠페인(구교태, 2002; 반현·최원석·신성혜, 2004; 이효성, 2006) 등 특정 이슈에 국한된 연구가 주로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미디어의 의제설정 여부, 특정 이슈에 대한 미디어별 의제설정 효과의 차이 등을 살펴보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연구 범위를 특정 이슈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일반적인 미디어별 의제설정 경향과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수용자를 여전히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미디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일반 수용자를 메시지 생산자의 위치로까지 변화시켰다.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 ‘개똥녀 사건’, ‘줄기세포 진위여부 논란’ 등 일반인이 메시지 생산자로 기능하고 이것이 미디어 의제가 되는 경우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흐름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선택적 노출이 가능해 개인마다 미디어 접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특정 온라인 신문이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조수선·김유정, 2004) 한 후 수용자 의제를 측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메일을 보내는(이건호, 2006) 등 실제 미디어 소비

환경과는 다른 조건에서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간접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실험연구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2) 포털의 대중화와 ‘아고라’

‘아고라’라는 토론 사이트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인 다음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포털이란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검색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색, 뉴스, 무료 이메일, 토론그룹, 온라인 쇼핑, 참고자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포털은 AOL과 같은 온라인 접속서비스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검색포털, 접속포털, 커뮤니티포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포털사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점은 이것이 다른 사이트를 가기 위한 관문이자 교차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일정 수준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것, 그리고 포털은 단지 인터넷 접속 시 최초로 접하는 사이트로 다른 사이트로의 연결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는 것 등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황용석, 2005. 7~8쪽).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2002년부터로 평가된다. 붉은 악마로 대표되는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의 뉴스 이용과 댓글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효선·미선이 사건으로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던 촛불시위와 2002년 말 제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현실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포털사이트들은 주목하게 되었고, 뉴스서비스를 포털의 주요사업영역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3년 3월 ‘미디어다음’이 출범하였고, 포털사이트들은 본격적으로 뉴스서비스를 강화하였다(최민재, 2006. 32쪽).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온갖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포털 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다양한 뉴스를 재가공하거나 이슈별로 재

배열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다양한 콘텐츠와 충성도 높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허브 매체로서 포털의 기본 속성과 맞물리면서 포털 미디어가 새로운 형식의 저널리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임종수(2005, 12~13쪽)는 이러한 원동력을 첫째 편리한 접근성, 둘째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셋째 두드러지게 앞서는 속보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포털은 언론활동의 핵심과정인 취재, 편집(선별), 그리고 보도라는 3가지 단계 가운데 1차 저작물의 2차적 편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과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편집행위가 자연적 매개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개입되는 언론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신문법이나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나온 법적 논쟁일 뿐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포털은 뉴스 유통체이자 소비체로서 언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황용석, 2007. 9~10쪽).

포털 뉴스는 이제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서 큰 영향력을 갖는 매체로서 발전하고 있다. 포털 뉴스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제공을 넘어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의제설정과 확산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은 미디어로서의 포털을 의미하는 새로운 ‘포털 저널리즘’(portal journalism)으로까지 불리우고 있다(송경재, 2005. 2쪽). 견해에 따라서는 이러한 용어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과 무관하게 포털을 하나의 미디어이자 저널리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임종수, 2005).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제공 받은 기존 언론의 수많은 기사 중 일부를 선택해서 ‘재매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성매체에서 생산된 특정 의제가 포털 미디어에서 걸러져 다시 기성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재의제화’ 경향을 낳기도 한다(임종수, 2005).

실제로 2005년 1월의 ‘서귀포시 부실 도시락 사건’은 대표적인 재의제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초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가 2005년 1월 8일 “우리사회가 이 도시락을 결식아동에게 먹이고 있습니다”¹⁰⁾라는 제목의 기사를 탐라자치연대의 고발로 작성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후 제주지역 일간신문인 한라일보가 1월 10일자 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¹¹⁾를 게재하였고, 같은

10)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2>

11) 한라일보 2005년 1월 10일자 “이걸로 점심 때우나요?”

날 오후 4시 37분 연합뉴스가 스트레이트 단발 기사로 보도¹²⁾하면서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주의 소리’나 ‘한라일보’는 당시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았다. 뉴스가 공급되지 않았기에 보도와 동시에 포털에 의해 의제화되기를 못하였다. 하지만,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에 의해 기사가 작성되고 이후 이 기사가 포털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식아동 도시락 개선 네티즌 청원 운동¹³⁾으로 확대됐고, 기성매체에서 이 의제를 다시 다룸으로써 담당자의 직위해제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락 정책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포털 뉴스는 특정 의제를 생산한다기보다는 특정 의제의 소비를 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털이 특정 의제의 생산이 가능했다면, 최초 보도 시점에서 가능하였겠지만, 기존 언론의 기사를 받아야만 하는 ‘재매개적 한계’로 인해 의제의 소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포털 뉴스는 특정 의제를 생산한다기보다는 특정 의제의 소비를 선도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 의제설정의 형태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기존 매체의 의제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재영·최민재, 2007).

이러한 포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연구는 포털의 뉴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다. 미디어다음이 만든 ‘아고라’는 뉴스 외에 제공하는 하나의 걸가지 서비스 정도로 받아 들여져왔다. ‘아고라’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 시기는 2004년 12월 24일이다. 미디어다음 뉴스 안에서 각 주제별 핫이슈 토론으로 서비스되던 ‘토론 사이트’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 중에서 주제별 토론방이 아닌 독립 서비스로 토론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미디어다음이 유일하다.

앞서 언급한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은 포털의 재의제화 과정을 보여준 동시에 ‘아고라’가 주목받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고라에 올라온 글은 기존 매체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겠지만 포털의 의제설정은 거치지 않은 것이다. 포털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네티즌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의제

http://www.hallailbo.co.kr/searchview.php3?no=157333&read_temp=20050110§ion=44&search=도시락

12)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501/10/yonhap/v8117349.html> “서귀포시, 결식아동에 부실도시락 제공”, 이 기사를 미디어 다음이 2005년 1월 10일 저녁 뉴스 박스에 이미지 기사로 노출하면서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13)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75&cateNo=241&boardNo=175> “전국결식아동 도시락 개선해주세요”라는 이 청원에는 네티즌 4751명이 서명을 하였다.

실정이다. 기존 매체로부터 습득한 정보로 직접 행동에 나서 그것이 다시 기존 매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 청원¹⁴⁾ 같은 경우가 아고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한 네티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청원은 ‘뽕질’ 등을 통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고 결국 기존 매체들이 일자별로 서명자수를 보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재의제화가 아니라 1차 의제설정을 한 것이고 그것을 기존 매체들이 재의제화한 사례이다.

아고라는 게시판 중심의 토론사이트로 게시물 작성자의 일방적 발언이 주를 이루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댓글과 답글, 찬성 반대 등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토론 글을 작성해 자신의 주장을 펼 수도 있고, 청원 기능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동참을 제안할 수도 있다. 쇠고기 파동 당시 화제를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이 그 예이다. 공간만 열어 놓았기 때문에 토론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작성자 개인이 스스로 제공해야 하며, 토론 진행을 위한 사회자 역할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온라인 토론 사이트인 Slash.org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Slashdot.org는 1997년 Rob Malda라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IT 관련 회사인 OSTG(Open Source Technology Grou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고라’처럼 대형 사이트에 소속된 서비스가 아닌 독립된 서비스이다. 이 사이트는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집인(editors)과 사회자(moderators)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누구나 Slashdot 사이트에 토론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나, 첫 화면에 나타나는 토론주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토론방을 운영하는 소수의 ‘편집인’들에게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익명 혹은 실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익명으로 처음으로 올려진 글은 0점에서 시작하며, 실명 글은 1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토론에 참가한 회원의 글은 2점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처음에 부여된 점수는 토론참가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다수의 사회자들(moderators)에 의해 변경가능하고 각 사회자들은 5점의 ‘사회점수’(moderation points)를 부여할 수 있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특정 점수 이상을 받은 글들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 모든 글들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14)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을 목표로 시작된 이 청원에는 130만 명이상이 서명하였다.

굳이 Slashdot을 소개한 이유는 ‘아고라’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고라’의 폭발성을 그 비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고라’에서는 주제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자유롭다. 또, 사회자나 중재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로 제기하고 싶은 글을 사용자의 행위로 주요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추천 기능과 댓글 참여 등을 통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글 읽기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고 노출되는 이름은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화된 포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Slashdot과 비교해 사용자 친숙도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방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영철(2000)은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펼쳤던 총선연대의 게시판을 분석해 온라인 게시판 토론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바 있고, 이준웅·김은미·김현석(2007)은 17대 총선 당시 다음의 총선 토론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통해 온라인 토론 의견지도자의 속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박은희·이수영(2002)은 2000년 4월 발생했던 ‘성수여중생 폭력사건’ 당시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을 분석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제 전개과정에 대해 연구했고,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 마녀사냥(김규찬, 2006), 인터넷 게시판에 나타나는 팬덤 커뮤니케이션 현상(박성희·박정윤, 2006), 2004년 대통령 탄핵 열풍 당시 의제 전개 과정(박경숙·이관열, 2004) 등 관련한 연구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어려울 정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시점과 그 시점에서 변인을 통제한 실험적인 토론방을 개설하는 방법(음수연, 2003)을 사용하거나 그동안 주목받았던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해서 공통점을 도출해 이론화를 시도(김성태·이영환, 2006)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개설된 토론방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준웅·김은미, 2006), 일정한 키워드로 검색해 도출된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조화순, 2008)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3)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2008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은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은 ‘촛불’이 대중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발현된 새로운 감성과 상상력 그리고 생활정치와 정치적인 영역의 확대를 촉발시킨 ‘이정표적’ 사건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기형, 2008). ‘촛불’을 가능케 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론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그 해석과 관련한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기에 그동안 나온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창호·정의철(2008)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포털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얻고 있었으며, 촛불문화제에 나오게 된 것도 인터넷의 영향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청소년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리로 나왔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도 청소년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성이·장우영(2008)도 촛불집회가 열렸던 서울광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촛불 집회의 선도세력이었던 중고생들은 이른바 ‘철없는 10대’는 아니었다”라고 분석하고 “이들은 ‘논술 세대’로 신문을 자주 접하면서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모바일 등을 통한 정보 전파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한겨레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¹⁵⁾에서도 나타난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중고생 33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처음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1%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14.0%를 훨씬 상회했다. 또,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의 의무로 생각하기에’가 5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해 이들의 인식을 확인해줬다.

15) 한겨레 21 제716호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켜다

이현우(2008)는 6월 6일과 8일에 서울광장 촛불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7월 17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18대 총선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시켜 참여의 한 유형으로서 촛불집회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진보성향의 권영길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각각 80%와 70% 가까이가 촛불집회에 참석의사가 있거나 참석했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4명 중 1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촛불집회가 단순히 쇠고기 문제로만 열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촛불’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용철(2008)은 중앙지도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온-오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지성이 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는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지적하고, 촛불시위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그간 사이버공간에서 종종 보여진 온라인 포퓰리즘(online populism)이 대중의 집단지성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여 왔다지만, 촛불시위 사례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의 출현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조화순(2008)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다음의 야고라, ‘엽기 혹은 진실’ 카페, ‘82cook.com’ 등을 대상으로 이들 사이트의 페이지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시민들이 수평적 차원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정부 관료와 엘리트들에게 압박을 행사하여 새로운 패턴의 시민 정치참여의 가능성과 정당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였다고 촛불시위를 평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조작된 정보와 소위 ‘광우병 괴담’ 같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네티즌에 의해 수정되거나 정보가 보강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하고 인터넷이 나름의 자정작용이 가능한 ‘질서’를 갖춘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졌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괴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과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 규제 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박경신(2008)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의 임시차단조치의 의무화, 사이버 모욕죄 등과 같은 정책의 도입에 대해 정부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방어하려는 성향으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행정기관들이 법적 근거없이 우선 ‘불온한 표현’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이승선(2008)은 인터넷 정보 유통의 중심으로서 포털에 주목하면서 포털이 현재 실질적으로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포털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적인 행위를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개정작업의 긴급함을 지적하였다. 송경재(2008)는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공개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네티즌을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병동(2008)은 광우병과 관련한 보도 분석을 통해 ‘사실’과 ‘스트레이트’가 혼재되는 신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갖고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사실이나 칼럼 등 의견을 표출하는 기사에서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해야 하는 뉴스 기사에도 포함시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 심재철(2008)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나온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그 매체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지에 상관없이 사회적 해악에 관한 명백하며 현존하는 증거가 없이는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많은 언론기사와 전문가들은 이른바 ‘촛불시위’에서 인터넷 공간이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한다(김용철, 2008; 허태희·장우영, 2008; 송경재 2008; 조화순, 2008; 이창호 2008). 온라인에서 촛불시위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한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집회로 참여하였고, 그 집회 참여의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해 공유하였다.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기존 언론매체들의 영향력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고, 더 많은 네티즌들을 시위에 이끌어 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공유는 오프라인 시위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끊임없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내고 재생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아고라’는 시위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담을 전달하는 온라인의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촛불’이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대부분이 인정하고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시선이 우세하였다. 다만, 인터넷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시기

1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4월 18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 6개월간 ‘아고라’에 올라온 토론 게시글 수, 댓글 수, 게시글 작성자 수, 처음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 수 등을 일단위로 살펴보았다. 이들 기본 데이터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을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해 보기 위해서이다.

2차적으로는 같은 기간 ‘아고라’에 토론 베스트로 등록된 글 모두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모든 게시물을 분석하면 가장 좋겠지만 하루에만 수만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추천수 조회수 댓글수 등을 조합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베스트 토론글만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아고라’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아고라에는 토론방 외에도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유명해진 네티즌 청원 공간¹⁶⁾,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 공간¹⁷⁾, 재밌는 사진 등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즐보드¹⁸⁾ 등의 공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론 공간¹⁹⁾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즐보드와 이야기 공간은 주로 재미를 위한 게시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온라인 여론 전개 과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제하였고, 청원 공간은 주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공감 정도를 나타내는 곳으로 이미 전개된 온라인 여론을 반영하는 성격이 더 강하기에 부득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토론 공간만으로 한정할 때 분석이 가장 용이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1차 분석 대상인 ‘아고라’의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다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학술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조사기간 동안 등록된 토론글 수, 토론글 작성자 수, 처음으로 토론글을 작

16)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

17) <http://agora.media.daum.net/story/>

18) <http://agora.media.daum.net/kin/>

19) <http://agora.media.daum.net/debate/>

성한 사람 수, 토론글에 붙은 댓글 수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디어다음을 통해 조사 당시 존재했던 아고라의 토론방 13개²⁰⁾ 각각의 일자별 데이터를 수급하였다. 그 수치를 합산해 전체 토론방 수치를 계산하였다.

2차 분석대상은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이다. 조사 당시 아고라에는 기존 언론의 기사 분류와 유사한 형태로 주제별로 13개의 토론방이 존재²¹⁾하고 있었다. 모든 토론방의 글들 중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 등에 의해 산출되는 토론 베스트 글들은 일자별로 연구자가 수동으로 직접 수집하였다. 하지만, 이 산출의 기준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미세한 부분이지만, 조금씩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추천수, 조회수, 댓글수 등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한 왜곡을 막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토론 베스트 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토론 게시글을 대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



20) 자유토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IT과학, 취업, 언론, 교육, 종교, 제품, 리플토론 등 기존 언론의 기사 분류 기준과 비슷한 형태이다.

21) 글 작성 시점에는 18개의 토론방이 존재해 조사 당시보다 5개가 증가하였다.

조사 당시 <그림 1>의 네모 테두리 부분과 같이 아고라 토론 메인 페이지에서는 15개의 토론 베스트 글이 고정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 곳에 올라오는 글들은 각 토론방에서 베스트로 선정된 글들 중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선정된 글들이다. 고정적으로 15개가 노출되고 있지만, 매일 새롭게 선정되는 글들은 그것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수집한 토론 베스트 글은 모두 1,777개로 하루 평균 약 9.76개의 글이 선정되었다. 이중 272개는 작성자가 자신의 글을 삭제하여 최종 분석대상 토론 베스트 글은 1,505개였다. 삭제된 글을 분석 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조사 시점과 분석 시점의 차이로 인해 이미 삭제된 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분석 시기

분석 대상 데이터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4월 18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 기간을 설정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기간으로 총 26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이후 3개월까지로 기간을 한정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돌아올랐던 '촛불시위'가 대략 7월 초를 거치면서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해 3개월로 한정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여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에 쇠고기 수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기간도 3개월로 이후 기간과 같게 한정하였다. 이전 이후 시기를 같게 한정된 이유는 동일 기간을 비교할 때 시기적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 분석 유목

1차 분석 대상인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아고라의 각 토론방을 분석 단위로 선정하였다. 각 토론방을 합산한 수치만을 계산하지 않고 각 토론방을 분석단위로 선정한 이유는 토론방에 들어오는 이유가 토론방의 주제별로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각 토론방별로 구분해 수치를 수집한 후 그것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그것을 주별, 쇠고기 협상 이전, 쇠고기 협상 이후, 전체 합계 방식으로 취합 구분하였다.

2차 분석 대상인 토론 베스트 글의 경우는 기술적 집계 부분과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유목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적 집계 부분은 해당 토론 베스트 글의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수, 작성일, 글이 소속된 토론방으로 유목을 구분하였다. 이는 명백히 기준이 드러나는 유목들로 기술적 집계에 해당한다.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유목으로는 글의 주제, 글의 유형, 글의 근거, 글의 성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글의 주제의 경우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분할 수도 있었지만, 글의 내용을 보고 직접 주제를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윤영철, 2000; 박은희·이수영, 2002; 박성희·박정윤, 2006;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 등)들은 주로 정해진 주제의 토론방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모든 주제의 토론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구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의 주제는 미리 유목을 정하지 않고 글을 분석한 후 도출되는 주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1차로 연구자와 신문방송학과 출신의 미디어다음 ‘아고라’ 운영자 1명이 같이 코딩을 실시하여 21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주제어로 분류하는 2차 작업을 거쳐 글의 주제를 총 64개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3월 9일 토론 베스트 글인 “박근혜의 장고와 전여욱의 부상”²²⁾이라는 게시글의 경우 최초에는 주제를 ‘전여욱 의원’으로 분류하였지만, 2차 분류를 통해 정치인으로 분류하였다. 6월 6일 토론 베스트 글인 “나경원 의원, 짙은 화장 지우시겠습니까?”²³⁾라는 게시글의 경우도 최초에는 ‘나경원 의원’으로 분류하였지만, 2차 분류를 통해 정치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렇듯 2차 분류를 실시한 이유는 1차 분류 뒤 ‘전여욱 의원’ ‘나경원 의원’으로 도출된 주제의

2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479675>

2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43669>

수가 각각 1개씩이기 때문이다. 빈도가 낮은 주제들이지만,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볼 때 변화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연예인을 다룬 게시글들은 주제를 연예인으로 2차 분류하였고, 일회성 사건 사고들을 개별 주제로 한 게시글들은 사건사고 주제로 2차 분류 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없는 이라크 전쟁, 청계천 등과 같은 주제는 빈도가 1에 불과하였지만, 독립된 주제로 처리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으로 도출된 주제의 수는 <표 2>와 같이 모두 64개였다. 단,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내용은 따로 분류하였다. 광우병 논란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찬성 내용과 촛불집회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2> 토론 베스트 글 주제

주제	빈도	주제	빈도	주제	빈도
촛불집회	186	연예인	15	지역감정	4
쇠고기	168	공무원	14	GMO	4
경제위기	113	노무현	14	간통죄	3
대통령	104	송재문	13	재래시장	3
부동산	104	양극화	12	혁신도시	3
정치인	72	외교정책	12	금산분리	2
민영화	56	개각	10	대학축제	2
선거	52	제품불만	8	사형제도	2
교육	51	환율	8	종교비판	2
언론	46	금강산피격	7	태안	2
영어몰입	45	북한	7	한일터널	2
대운하	40	인터넷	7	현대자동차	2
주식	39	공안정국	6	베이징올림픽	1
물가	34	국회	6	성차별	1
FTA	32	금리	6	소리바다	1
삼성	28	기업	6	영화	1
기름값	26	성범죄	6	우주인	1
사건사고	22	종교	5	이동통신사	1
세금	19	747공약	4	이라크전쟁	1
독도	18	국방	4	청계천	1
정부조직개편	17	식량위기	4		
노동	16	이념	4	합계	1505

이러한 주제로 쓴 글들은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글의 성향 유목을 정부 옹호, 정부 비판, 중

립, 기타 / 판단 불가로 구분하였다. 특히, 촛불시위 및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글들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뚜렷이 구분돼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 같은 주제를 다룬 글이다 하더라도 그 성향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단, 연예인 및 사건 사고를 다룬 가벼운 주제의 글들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을 것이다. 이에 따른 글의 성향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옹호 : 정부의 정책 또는 대통령의 통치 방향에 대한 찬성 및 옹호
- 정부 비판 : 정부의 정책 또는 대통령의 통치 방향에 대한 반대 및 비판
- 중립 : 양비론적 입장이거나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입장
- 기타 / 판단 불가 : 제품 불만, 연예인에 대한 선호 등 판단이 어려운 글

다음으로 토론 베스트 글의 유형과 글의 근거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한 유목은 선행 연구인 조화순(2008)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조화순은 토론방에 올라온 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글의 유형을 의견/주장, 경고/위협, 욕설/비방, 정보제공, 꾸밈/감정토로의 항목을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단순한 펴글을 추가하였다. 보도기사를 그대로 베껴온다거나 다른 사이트의 글을 그대로 긁어온 경우가 분석 도중 심심치 않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의 유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의견 / 주장 : 근거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하여 쓴 글
- 경고 / 위협 :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행동을 강요하는 글
- 욕설 / 비방 :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 감정토로 : 현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글
- 정보제공 :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이 아닌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
- 단순펴글 : 남의 글을 단순히 그대로 긁어온 글

작성한 글의 근거 유목도 조화순(2008)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조화순은 글의 근거로 개인 경험, 공표된 사실, 연구논문, 인터넷 소스 등 4개의 유목을 설정하여 글을 분석하였다. 이같이 설정한 이유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일수록 논

리적 토론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공표된 사실이나 연구논문을 근거로 쓰여진 글들은 다른 근거에 비해 객관적 설득력을 좀 더 얻을 수 있다. 조화순은 공표된 사실의 범주에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표된 사실과 의견기사 내용을 따로 구분해 글의 근거 유목을 설정하였다. 의견 기사를 공표된 사실에서 구분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논란이 첨예화되면서 공표된 사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 내용을 담은 의견 기사를 글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의 근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공표된 사실 : 정부 발표 내용, 실제로 벌어진 일, 스트레이트성 기사
- 의견 기사 : 스트레이트가 아닌 해설 기사, 사설·칼럼성 기사
- 연구 논문 : 발표된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등
- 인터넷 :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동영상, 웹페이지 등
- 개인 경험 : 본인의 경험담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5. 신뢰도 검증

미디어다음의 협조를 얻은 자료의 검증은 사실 쉽지 않았다. 검증할 방법이 있었다면 직접 수집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은 각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였다. 이 게시글 수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간 1주일 단위로 토론방을 하나씩 선정

하여 그날 해당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다음 측의 자료와 일치하였다. 작성자수, 댓글수, 처음으로 글쓴이 수 등의 데이터는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미디어다음 측에 정확도 확인을 위해 같은 데이터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수집한 두 번의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였고, 게시글 수 수작업 검증이 일치한 점으로 봤을 때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토론 베스트 글의 1차 주제 코딩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현재 미디어다음에서 아고라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 1명과 같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주제에 213개가 도출되었고 160개의 주제가 일치해 코딩 일치도는 약 75%였다. 213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코딩자가 상호 협의하에 64개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후 홀스티(Hoslti)의 신뢰도 계산법에 따라 30개의 샘플을 골라서 4가지 항목에 적용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총 120개 중에서 109개가 일치하였다. 신뢰도 계산 = $4M/N_1+N_2+N_3$ (M : 일치한 항목수, N : 조사한 표본수)의 결과 신뢰도는 $109 \times 4 / 120 + 120 + 120 + 120 = 0.908$ 로 약 91%의 수준이었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1) 조사기간 아고라 토론방 사용량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조사기간 전체의 아고라 사용량에 대한 결과부터 분석하였다. 1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6개월간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는 모두 2,242,582개로 하루 평균 12,322개의 글이 새로 올라왔다. 댓글 수는 13,566,384개로 하루 평균 74,541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게시글 1개 당 평균 6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글을 쓴 사람 수는 모두 737,574명으로 하루 평균 4,053명이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 수는 180,809명으로 하루 평균 994명이 아고라에 처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글을 쓰는 사람 1명 당 평균 3개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고, 글을 쓴 사람 중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은 평균 2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고라 토론방 게시글 수 및 댓글 수

토론방	게시글 수			댓글 수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1254958	6895.4	56.0%	7535469	41403.7	55.5%
정치	576584	3168	25.7%	2545546	13986.5	18.8%
교육	16386	90	0.7%	110129	605.1	0.8%
언론	21687	119.2	1.0%	169542	931.5	1.2%
국제	16237	89.2	0.7%	60342	331.5	0.4%
문화	21864	120.1	1.0%	128226	704.5	0.9%
사회	89413	491.3	4.0%	702551	3860.2	5.2%
경제	98070	538.8	4.4%	1272719	6993	9.4%
인터넷	21188	116.4	0.9%	78570	431.7	0.6%
종교	110699	608.2	4.9%	648390	3562.6	4.8%
제품	5946	32.7	0.3%	27831	152.9	0.2%
리플	4869	26.8	0.2%	275501	1513.7	2.0%
취업	4681	25.7	0.2%	11568	63.6	0.1%
전체	2242582	12321.9	100.0%	13566384	74540.6	100.0%

각 토론방 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게시글이 많이 올라온 토론방은 자유 토론방으로 하루 평균 6,895개의 글이 올라와 전체 게시글의 56%를 차지하였다. 정치 토론방이 그 뒤를 이었는데 하루 평균 3,168개의 글이 올라와 전체 게시글의 25.7%를 차지하였다. 3번째로 많은 글이 올라온 종교 토론방의 하루 평균 게시글 수는 608개로 전체 4.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경제, 사회 토론방 등의 순이었다. 자유 토론방과 정치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을 합치면 전체 81.7%를 차지해 두 토론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다.

댓글 수는 게시글 수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자유 토론방과 정치 토론방이 게시글 수가 가장 많은 만큼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그 비중의 변화는 있었다. 자유 토론방의 하루 평균 댓글 수는 41,404개로 전체의 55.5%를 차지해 게시글 수 비중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 토론방의 하루 평균 댓글 수는 13,987개로 전체의 18.8%로 게시글 수 비중 25.7%에 비해 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 한 개당 달린 댓글 수를 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유 토론방에는 게시글 한 개당 평균 6.0개의 댓글이 달려 전체 평균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치 토론방에는 4.4개의 댓글이 달렸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 토론방이다. 경제 토론방은 게시글 수 비중은 4.4%였는데, 댓글 수의 비중은 9.4%로 두배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경제 토론방 게시글 한 개당 평균 13.0개의 댓글이 달려 토론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²⁴⁾ 사회 토론방이 7.9개 언론 토론방이 7.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 아고라 토론방 글쓴이 수와 처음으로 글쓴이 수

토론방	글쓴이 수			처음으로 글쓴이 수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392343	2155.7	53.2%	75259	413.5	41.6%
정치	152870	839.9	20.7%	37607	206.6	20.8%
교육	10995	60.4	1.5%	4753	26.1	2.6%
언론	14683	80.7	2.0%	6448	35.4	3.6%
국제	8698	47.8	1.2%	2923	16.1	1.6%
문화	12489	68.6	1.7%	4340	23.8	2.4%

24) 리플토론방이 56.6개의 댓글이 달려 가장 많았지만 주제에 대해 댓글을 달아 진행하는 토론방으로 일반적인 토론방과는 다른 형식이라 제외하였다.

사회	45927	252.3	6.2%	16046	88.2	8.9%
경제	56685	311.5	7.7%	20855	114.6	11.5%
인터넷	5290	29.1	0.7%	1717	9.4	0.9%
종교	26919	147.9	3.6%	4192	23	2.3%
제품	4146	22.8	0.6%	2632	14.5	1.5%
리플	3335	18.3	0.5%	2330	12.8	1.3%
취업	3194	17.5	0.4%	1707	9.4	0.9%
전체	737574	4052.6	100.0%	180809	993.5	100.0%

게시글을 쓴 사람의 수는 게시글 수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 토론방에 하루 평균 2,156명이 글을 써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고 정치 토론방에 하루 평균 840명이 글을 써 그 뒤를 이었다.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를 보면 자유 토론방이 3.2개 정치 토론방이 3.8개로 평균 3.0개 보다 모두 높았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 토론방이다. 경제 토론방의 게시글 수는 전체의 4.4%였지만, 글쓴이 수 비중은 7.7%로 자유 토론방과 정치 토론방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게시글 수가 경제 토론방보다 많았던 종교 토론방의 글쓴이 수는 전체의 3.6%로 사회 토론방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의 경우 종교 토론방이 4.1개로 토론방 중 가장 높았고, 인터넷 토론방이 4.0개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 토론방의 경우는 1.7개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론방에 처음으로 글쓴이 수를 보면 자유 토론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경제 토론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글쓴이 수가 가장 많은 자유 토론방이 처음으로 글쓴이 수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에서 41.6%로 크게 줄었다. 대신 경제 토론방은 7.7%에서 11.5%로 사회 토론방이 6.2%에서 8.9%로 증가하였다.

<표 5> 아고라 토론방 사용자 활동량

토론방	게시글 1개당 댓글 수	글쓴이 1명당 게시글 수	글쓴이중 첫 참여자 비중
자유	6.0	3.2	19%
정치	4.4	3.8	25%
교육	6.7	1.5	43%
언론	7.8	1.5	44%
국제	3.7	1.9	34%
문화	5.9	1.8	35%

사회	7.9	1.9	35%
경제	13.0	1.7	37%
인터넷	3.7	4.0	32%
종교	5.9	4.1	16%
제품	4.7	1.4	63%
리플	56.6	1.5	70%
취업	2.5	1.5	53%
전체	6.0	3.0	25%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아고라 사용자들은 주로 자유 토론방과 정치 토론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토론방에 가장 많은 글을 올렸고 가장 많은 사람이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둘의 비중은 다른 토론방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다. 두 토론방을 제외하고 게시글 수 비중이 1%이상인 토론방은 종교, 경제, 사회, 언론, 문화 토론방 등 5개에 불과하였다. 이 중 경제 토론방이 가장 눈에 띈다. 경제 토론방의 경우는 게시글 수는 적었지만, 1인당 댓글 수는 가장 많았다. 또 글쓴이 수도 경제 토론방은 게시글 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경제 토론방은 1차 참여라 할 수 있는 글의 수는 적었지만, 다른 토론방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었고 2차 참여라 할 수 있는 댓글 수도 다른 토론방에 비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토론방과 언론 토론방도 경제 토론방 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자유 토론방에 이어 가장 글의 수가 많았던 종교 토론방의 경우는 글쓴이 1명당 글의 수가 4.1개로 가장 높아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판단되어진다. 때문에 향후 분석에서 정치, 자유 토론방과 함께 경제, 사회, 언론 토론방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2)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게시글 수와 댓글 수의 변화

위와 같은 아고라 사용량을 미국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2008년 4월 18일을 기점으로 나눠 비교해 보았다. 우선 각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하루 평균 4,177개의 글이 올라왔지만, 타결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466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약 5배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표 6>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한 게시글 수 변화

토론방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61134	671.8	16.1%	1193824	13118.9	64.1%
정치	181573	1995.3	47.8%	395011	4340.8	21.2%
교육	9415	103.5	2.5%	6971	76.6	0.4%
언론	3103	34.1	0.8%	18584	204.2	1.0%
국제	4263	46.8	1.1%	11974	131.6	0.6%
문화	6643	73.0	1.7%	15221	167.3	0.8%
사회	25251	277.5	6.6%	64162	705.1	3.4%
경제	23445	257.6	6.2%	74625	820.1	4.0%
인터넷	7968	87.6	2.1%	13220	145.3	0.7%
종교	53877	592.1	14.2%	56822	624.4	3.1%
제품	1271	14.0	0.3%	4675	51.4	0.3%
리플	922	10.1	0.2%	3947	43.4	0.2%
취업	1272	14.0	0.3%	3409	37.5	0.2%
전체	380137	4177.3	100.0%	1862445	20466.4	100.0%

<표 6>에서 보듯이 교육 토론방을 제외한 모든 토론방의 게시글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자유 토론방은 극적이라는 표현까지 어울릴 정도로 급증하였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 하루 평균 672개의 글이 올라오던 자유 토론방은 협상 타결 이후 하루 평균 13,119개의 글이 올라와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언론 토론방도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회와 경제 토론방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치 토론방은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종교 토론방은 약간 증가하였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정치 토론방에 가장 많은 글이 올라왔지만, 타결 이후에는 자유 토론방에 가장 많은 글이 올라왔다. 협상 타결 이전 자유 토론방 만큼의 비중을 차지했던 종교 토론방이 타결 이후 사회, 경제 토론방 보다 적은 글이 올라온 것도 눈에 띈다. 타결 이전 게시글 수가 가장 많았던 토론방 순서는 정치, 자유, 종교, 사회, 경제, 교육이었지만, 타결 이후에는 자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론의 순서로 바뀌었다. 자유 토론방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고라 이용자들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여전히

정치를 주제로 글을 많이 썼지만 그 비중은 전보다 줄었고 종교, 교육에 대한 글 보다는 경제, 사회, 언론에 대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론방의 게시글을 1차 참여라고 한다면 2차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게시글에 붙는 댓글의 수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하루 평균 21,976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12,7105개의 댓글이 달려 약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게시글 수가 약 5배 늘어난 것에 비교하면 댓글의 증가 폭이 더 크음을 알 수 있다.

<표 7>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한 댓글 수 변화

토론방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394419	4334.3	19.7%	7141050	78473.1	61.7%
정치	581296	6387.9	29.1%	1964250	21585.2	17.0%
교육	73219	804.6	3.7%	36910	405.6	0.3%
언론	23638	259.8	1.2%	145904	1603.3	1.3%
국제	13911	152.9	0.7%	46431	510.2	0.4%
문화	42815	470.5	2.1%	85411	938.6	0.7%
사회	204967	2252.4	10.2%	497584	5468.0	4.3%
경제	269226	2958.5	13.5%	1003493	11027.4	8.7%
인터넷	41613	457.3	2.1%	36957	406.1	0.3%
종교	312441	3433.4	15.6%	335949	3691.7	2.9%
제품	2026	22.3	0.1%	25805	283.6	0.2%
리플	38987	428.4	1.9%	236514	2599.1	2.0%
취업	1245	13.7	0.1%	10323	113.4	0.1%
전체	1999803	21975.9	100.0%	11566581	127105.3	100.0%

<표 7>에서 보듯이 각 토론방별 댓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거의 게시글 수 증가량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댓글은 게시글이 존재해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댓글의 수가 그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읽어야 한다. 게시글 수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댓글의 수가 그보다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아고라 사용자들이 게시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8>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게시글 1개 당 달린 댓글 수 변화

토론방	자유	정치	교육	언론	국제	문화	사회	경제	인터넷	종교	제품	리플	취업	전체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	6.5	3.2	7.8	7.6	3.3	6.4	8.1	11.5	5.2	5.8	1.6	42.3	1	5.3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6	5	5.3	7.9	3.9	5.6	7.8	13.4	2.8	5.9	5.5	59.9	3	6.2

<표 8>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이전에는 게시글 1개 당 댓글이 5.3개 달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쇠고기 협상 이후에는 6.2개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사람들이 게시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쳐 댓글을 오히려 좀 덜 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벗어나 있다. 글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그 반응은 줄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유 토론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자유 토론방은 게시글의 수가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게시글에 붙는 댓글의 수는 0.5개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전체 토론방 평균인 6.2개 보다 0.2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감소폭은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다. 쇠고기 협상이전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던 정치 토론방이 게시글 당 3.2개의 댓글이 달리다가 협상 타결 이후 5.0개로 1.8개 증가한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 글이 많은 곳일수록 글이 묻히기 쉽기 때문이다.

토론방별로 살펴볼 때 눈길을 끄는 곳은 경제 토론방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이나 이후나 게시글에 붙는 댓글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제 토론방이다. 경제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약 3.2배 증가하였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게시글 당 붙는 댓글의 수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게시글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토론방의 글들이 많이 읽히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아고라' 사용자들이 토론방에 많은 글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게시글에 즉각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댓글의

수도 그와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고라’ 이용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이 버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아고라’에 글을 쓰면 누군가는 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쓰지만, 읽혀지지 않는다면 글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달리는 댓글의 수가 글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은 ‘아고라’에 올라온 글이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아고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주목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인터넷이라는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는데 고립의 두려움을 떨쳐냈다고 볼 수 있다. 대세에 따르기만 했다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는 여전히 사람들이 대세를 좇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은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다. 그런데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보여주듯이 한 곳에 모여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온라인 토론의 대세구나라는 사용자의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고라라는 공간이 주목 받는 데에는 기존 미디어를 통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따라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공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공간에 참여해 새로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식이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글쓴이 수와 처음으로 글쓴이 수 변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쓰는 사람 수는 하루 평균 1,423명이었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하루 평균 6,682명이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나 약 4.7배 증가하였다. 올라온 게시글의 수가 약 4.9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정한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글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표 9>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한 글쓴이 수 변화

토론방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33260	365.5	25.7%	359083	3946.0	59.1%
정치	38947	428.0	30.1%	113923	1251.9	18.7%
교육	6057	66.6	4.7%	4938	54.3	0.8%
언론	2128	23.4	1.6%	12555	138.0	2.1%
국제	2389	26.3	1.8%	6309	69.3	1.0%
문화	3729	41.0	2.9%	8760	96.3	1.4%
사회	12109	133.1	9.3%	33818	371.6	5.6%
경제	14285	157.0	11.0%	42400	465.9	7.0%
인터넷	1854	20.4	1.4%	3436	37.8	0.6%
종교	12455	136.9	9.6%	14464	158.9	2.4%
제품	795	8.7	0.6%	3351	36.8	0.6%
리플	694	7.6	0.5%	2641	29.0	0.4%
취업	810	8.9	0.6%	2384	26.2	0.4%
전체	129512	1423.2	100.0%	608062	6682.0	100.0%

<표 9>에서 보듯이 교육 토론방을 제외한 모든 토론방에서 글쓴이 수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자유 토론방의 경우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하루 평균 365명이 글을 작성하였는데 협상 타결 이후 하루 평균 3,946명이 작성해 약 11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게시글 수가 약 20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글쓴이 수의 증가폭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양상은 앞서 살펴본 게시글 수 변화나 댓글 수 변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글을 쓴 토론방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자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토론방 등 5곳이었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자유, 정치, 사회, 경제, 언론, 종교 토론방 등 6곳으로 1곳이 늘어났다. 특히, 언론 토론방의 글쓴이 수는 협상 타결 이전 하루 평균 23.4명이었는데 타결 이후 138명으로 약 5.9배 증가하였다. 언론 토론방의 게시글 수가 약 6.0배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게시글 수에 비례하여 글쓴이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 변화

토론방	자유	정치	교육	언론	국제	문화	사회	경제	인터넷	종교	제품	리플	취업	전체
-----	----	----	----	----	----	----	----	----	-----	----	----	----	----	----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	1.8	4.7	1.6	1.5	1.8	1.8	2.1	1.6	4.3	4.3	1.6	1.3	1.6	2.9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3.3	3.5	1.4	1.5	1.9	1.7	1.9	1.8	3.8	3.9	1.4	1.5	1.4	3.1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몇 명에 의해 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명이상이 글을 쓴 토론방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글쓴이 1명 당 게시글 수가 가장 작은 곳은 언론 토론방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이나 이후 모두 마찬가지이다.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던 자유 토론방의 경우 쇠고기 협상 이전에는 1명 당 게시글 수가 1.8개였지만, 타결이후 게시글 수가 급증하면서 3.3개로 증가하였다. 또, 정치 토론방도 4.7개에서 3.5개로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토론방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게시글 수가 많은 토론방일수록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글을 쓰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토론방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언론 토론방과 더불어 사회와 경제 토론방도 다양한 사람이 글을 쓰는 곳으로 분석된다.

토론방에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 수는 글쓴이 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토론방에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 수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하루 평균 281명이었는데 타결 이후는 하루 평균 1,706명으로 약 6.1배 증가하였다. 글쓴이 수가 약 4.7배 증가한 것이 비해 증가폭이 크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아고라에 접속한 사람들이 단순히 게시글을 읽기 위해 접속하기 보다는 내용이 어떠한 글을 쓰기 위해 접속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1> 쇠고기 협상 타결일을 기점으로 한 처음으로 글쓴이 수 변화

토론방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전체	일평균	비중	전체	일평균	비중
자유	6117	67.2	23.9%	69142	759.8	44.5%
정치	4567	50.2	17.9%	33040	363.1	21.3%
교육	2481	27.3	9.7%	2272	25.0	1.5%
언론	962	10.6	3.8%	5486	60.3	3.5%
국제	568	6.2	2.2%	2355	25.9	1.5%

문화	928	10.2	3.6%	3412	37.5	2.2%
사회	2685	29.5	10.5%	13361	146.8	8.6%
경제	3780	41.5	14.8%	17075	187.6	11.0%
인터넷	461	5.1	1.8%	1256	13.8	0.8%
종교	1540	16.9	6.0%	2652	29.1	1.7%
제품	555	6.1	2.2%	2077	22.8	1.3%
리플	485	5.3	1.9%	1845	20.3	1.2%
취업	430	4.7	1.7%	1277	14.0	0.8%
전체	25559	280.9	100.0%	155250	1706.0	100.0%

토론방별로 살펴보면 게시글이 가장 많이 올라왔던 자유 토론방에 역시 처음으로 글쓴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정치 토론방의 경우는 쇄고기 협상 타결 이전 가장 많은 글이 올라왔음에도 처음으로 글 쓴 사람 수는 자유 토론방보다 적었다. 이는 쇄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정치 토론방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길을 끄는 곳은 경제 토론방이다. 경제 토론방은 쇄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도 하루 평균 42명이 처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고 쇄고기 협상 이후에도 188명이 처음으로 글을 써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글쓴 사람 중 처음으로 글 쓴 사람의 비율을 보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표 12> 쇄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글쓴이 중 처음으로 글쓴이 비율 변화

토론방	자유	정치	교육	언론	국제	문화	사회	경제	인터넷	종교	제품	리플	취업	전체
쇄고기 협상 타결이전	18.4%	11.7%	4.0%	5.2%	2.8%	2.9%	2.2%	2.5%	2.9%	1.2%	0.8%	0.9%	5.1%	1.7%
쇄고기 협상 타결이후	19.3%	2.0%	4.6%	4.7%	3.3%	3.9%	3.5%	4.3%	3.6%	1.8%	6.2%	0.9%	5.6%	2.5%

<표 12>에서 보듯이 쇄고기 협상 타결 이후 글쓴이 수가 100명 이상인 토론방 중 언론, 경제, 사회 토론방이 처음으로 글쓴이 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글쓴이 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토론방에 다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아고라에 작성된 글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그 글들을 일정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글을 쓰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새롭게 참여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글쓴이 중 처음으로 글쓴 사람 비율이 협상 타결 이전 19.7%이었는데 협상 타결 이후 25.5%로 증가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토론 사이트에 글을 쓴다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같이 토론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을 쓰지 않을 것이고 그냥 올라온 글을 읽고 사이트에서 나가 버릴 것이다. 또, 게시글 수의 증가폭 만큼 글쓴이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아고라가 단순히 휘발성 내용들만이 존재하는 토론 사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괜히 글을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권위의 재확립’과 ‘배제의 관습’이 작용했다면 자신의 글을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1) 조사기간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특성

1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아고라 토론 메인 페이지에 올라온 토론 베스트 글을 수집한 결과 모두 1,777개였다. 이중 글쓴이가 삭제한 글 272개를 제외하고 1,505개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토론 베스트 글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782,791이었고 가장 적은 조회수는 497이었다. 평균 조회수는 63,458이었다. 평균 추천수는 2,410이었고 평균 댓글 수는 669개였다. 1,505개의 글 중 자신이 쓴 것이 한 개라도 포함된 작성자는 모두 892명이었다. 1개의 글만 포함된 사람이 744명이었고, 2개의 글이 포함된 사람은 76명이었다. 3개 이상 포함된 사람은 72명이었다. 가장 많은 글이 포함된 작성자는 ‘haeorm’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으로 모두 59개의 토론 베스트 글을 작성하였다. 10개 이상 포함된 작성자는 모두 14명이었다. 토론 베스트 글은 사용자의 추천수, 조회수, 댓글수 등을 모두

다. 옹호도 비판도 아닌 중립 성향의 글은 148개였고, 정부에 대해 쓴 글이 아니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글이 422개로 28.1%였다. 이들의 주제는 대부분 연예인, 대학축제, 제품불만 등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많았다. 이러한 성향의 글의 비중이 28.1%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아고라가 정치적 성향의 글만 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토론 베스트글은 이용자의 댓글수, 추천수, 조회수 등 2차 활동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표 15>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작성 목적

	감정토로	경고/위협	단순평글	욕설/비방	의견/주장	정보제공	합계
빈도	244	66	34	2	982	177	1505
비율(%)	16.2	4.4	2.3	0.1	65.2	11.8	100

토론 베스트 글의 작성 목적을 살펴보면 토론 사이트의 특성대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쓴 의견/주장 목적의 글일 982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65.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의 감정을 털어 놓는 감정토로 목적의 글이 244개였고, 정보제공 목적의 글이 177개로 뒤를 이었다. 욕설/비방 목적의 글이 2개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론 베스트 글이 추천수, 조회수, 댓글수 등의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의 2차 활동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욕설/비방 목적의 글이 그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보니 정부 발표 내용, 실제로 벌어진 일, 스트레이트성 기사 등을 근거로 쓴 글이 가장 많았다.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근거를 살펴본 결과 공표된 사실을 근거로 쓴 글이 643개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였고, 개인 경험이 397개, 의견 기사를 근거로 쓴 글이 26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근거로 쓴 글은 171개로 전체의 11.4%였고, 연구논문을 근거로 쓴 글은 29개로 1.9%에 불과하였다.

<표 16>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근거

	개인경험	공표된 사실	의견기사	연구논문	인터넷	합계
빈도	397	643	265	29	171	1505
비율(%)	26.4	42.7	17.6	1.9	11.4	100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들은 주로 경제 토론방의 글이 많았고, 공표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부 비판적 성향의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쓴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은 촛불집회, 美 쇠고기, 경제위기, 이명박 대통령, 부동산 등을 주제로 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무거운 이야기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 생활과 관련된 글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욕설 / 비방 내용의 글들이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토론 사이트 참여자들의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고라는 아직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내용들은 이용자들이 의해 자체적으로 걸러지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토론 베스트 글의 주제와 성향 변화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로 산출된 글은 모두 654개였다. 이중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한 글이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9.9%를 차지하였다. 부동산을 주제로 한 글이 64개로 경제 위기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국회의원 선거를 주제로 한 글이 49개, 영어몰입교육이 44개, 이명박 대통령을 주제로 한 글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총 주제의 수는 53개였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로 산출된 글은 모두 851개였다. 이중, 촛불집회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186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21.9%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166개로 전체의 19.5%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주제로 한 글이 61개, 경제위기를 주제로 한 글이 48개, 부동산을 주제로 한 글이 4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총 주제의 수는 45개였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과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의 수는 34개였다.

<표 17>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토론베스트 글 주제 변화(상위 15개)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주제	빈도	전체비중(%)	주제	빈도	전체비중(%)
경제위기	65	9.9	촛불집회	186	21.9
부동산	64	9.8	쇠고기	166	19.5

선거	49	7.5	이명박 대통령	61	7.2
영어몰입	44	6.7	경제위기	48	5.6
이명박 대통령	43	6.6	부동산	40	4.7
교육	39	6.0	정치인	37	4.3
주식	37	5.7	민영화	36	4.2
정치인	35	5.4	언론	30	3.5
대운하	25	3.8	FTA	26	3.1
물가	22	3.4	기름값	20	2.4
민영화	20	3.1	독도	18	2.1
삼성	19	2.9	대운하	15	1.8
언론	16	2.4	교육	12	1.4
정부조직개편	14	2.1	노동	12	1.4
송재문	13	2.0	물가	12	1.4
상위 15개 합	505	77.3	상위 15개 합	719	84.5

<표 17>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상위 15개의 주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한 경제위기, 부동산 외에도 주식, 물가, 삼성, 민영화 등을 경제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도 경제위기, 부동산, 민영화, FTA, 기름값, 노동, 물가 등을 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도 한미간 통상 협상에 비롯된 것을 감안하고, 대운하도 경제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제 관련 주제의 글은 더 많아진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글이 세 번째로 가장 많았지만, 그 수는 경제 관련 주제의 글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또, 협상 타결 이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음에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주제의 글은 상위 15개 주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를 보면 아고라를 정치 토론사이트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쪽에서 인용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 인터뷰 기사와 맥을 같이 한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을 보면,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글이 44개,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 대해 얘기한 글이 39개로 이 둘을 합치면 83개로 경제위기 주제보다 많다.

<표 17>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주제는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외에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언론과 이명박 대통령, 민영화에 관한 주제의 글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언론에 관한 글은 16개로 전체의 2.4%였지만, 협상 타결 이후 언론과 관련한 주제의 글은 30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로 증가하였다. 민영화와 관련한 토론 베스트 글도 협상 타결이전 20개로 전체의 3.1%에서 협상 타결 이후 36개로 전체의 4.2%로 증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협상 타결 이전 전체의 6.6%에서 협상 타결 이후 전체의 7.2%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FTA를 주제로 한 글의 경우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6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하였으나,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26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한 촛불집회가 처음에는 단순히 쇠고기 협상 반대에서 후에는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집회로 이어졌다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가장 많았던 경제위기와 부동산을 주제로 한 글은 쇠고기 협상 이후에도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주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띈다. 아고라 이용자들에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관련한 글은 시기에 상관없이 관심을 끄는 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아고라 토론 베스트 글의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에 미국산 쇠고기와 촛불집회와 관련된 글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제 외에 경제와 관련된 글이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이나 이후에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언론, 이명박 대통령, 민영화, FTA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과 관련한 주제의 글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촛불집회가 처음에는 단순히 쇠고기 협상 반대에서 후에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집회로 이어졌다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경제위기와 부동산 관련한 글이 시기에 상관없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내용 변화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 글 중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과 이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글 두 개를 대표적으로 선택해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것은 3월 14일에 등록된 “미국에서 느껴지는 Korea 제2의 IMF”²⁵⁾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본다.

“지금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환율장난도 어떻게보면 IMF와 같은 상황을 이끄는 침병역할을 하고 있는게 맞을겁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자금이 아마 한국이 제일 많을걸요? 중국 다음일수도 있다는건 더욱문제 되구요...그 투기세력들이 어느정도 빠지기만 해도 거침없이 무너질수 있습니다... 한국자본시장...”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경제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글 중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것은 6월 22일 등록된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어”²⁶⁾라는 글이다. 그 내용도 일부 인용해 본다.

“주택경기가 이명박 후보 당선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재무구조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이들 건설업체에 PF자금을 빌려준 제 2금융권은 동반 부실가능성이 점점 높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거품을 더이상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의 내용만 봐도 느껴지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의 글은 좀 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거하였고, 타결 이후의 글은 상황에 대해 좀 더 차분한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자는 감정적이지만 후자는 보다 냉정하게 글을 쓰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글들에 달린 댓글의 내용이다. 앞의 글에는 “저도 미국인데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침소봉대. 미국걱정이나 하세요” 등 글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 많다. 하지만, 뒷글에는 “예견된 수

2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53994>

2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149>

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되겠네요” 등 글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이미 왔더라는 내용의 댓글이 많다.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비슷한 주제의 글에 대해 이용자의 반응은 거의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 주제의 글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옹호인지 비판인지 등의 성향 변화를 살펴보면 잘 확인이 된다.

토론 베스트 글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310개로 전체의 47.4%였는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518개로 전체의 60.9%를 차지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정부를 옹호하는 성향의 글도 협상 타결 이전 22개로 전체의 3.4%에서 타결 이후 85개로 전체 10%를 차지해 그 비중이 높아졌지만, 비판적인 성향의 글에 비해 수가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토론베스트 글의 성향 변화

글의 성향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비판	310	47.4	518	60.9
정부옹호	22	3.4	85	10.0
중립	69	10.6	79	9.3
기타 / 판단불가	253	38.7	169	19.9
합계	654	100.0	851	100.0

<표 18>에서 보듯이 중립 성향의 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불만, 연예인에 대한 선호 등 판단이 어려운 기타 / 판단불가 성향의 글의 비중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38.7%에서 협상 타결 이후 19.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옹호 또는 비판 등 어떤 명확한 성향을 보여주는 글이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성향의 확인을 위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과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 주제에 대하여 글의 성향을 교차분석해 보았

다. <표 20>에서 보듯이 우선 대부분의 주제에서 기타 / 판단불가 항목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중립 성향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알 수 있다. 언론을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 글들이 대표적 예이다. 언론을 주제로 한 글들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전체 16개 중 12개가 기타 / 판단불가인 성향으로 75%였는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정부 비판 성향이 14개로 46.7%였고, 기타 / 판단불가인 성향은 11개로 36.7%였다. 물가를 주제로 한 글도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기타 / 판단불가 비중이 36.4%였는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8.3%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표 19>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주제별 글의 성향 변화

성향 주제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비판		정부옹호		중립		기타 / 판단불가		정부비판		정부옹호		중립		기타 / 판단불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경제위기	32	49.2%	1	1.5%	12	18.5%	20	30.8%	28	58.3%	3	6.3%	4	8.3%	13	27.1%
교육	11	28.2%	3	7.7%	2	5.1%	23	59%	6	50%	0	0%	1	8.3%	5	41.7%
대운하	24	96%	0	0%	0	0%	1	4%	11	73.3%	3	20%	1	6.7%	0	0%
대통령	33	76.7%	4	9.3%	0	0%	6	14%	54	88.5%	4	6.6%	2	3.3%	1	1.6%
물가	14	63.6%	0	0%	0	0%	8	36.4%	9	75%	0	0%	2	16.7%	1	8.3%
민영화	18	90%	0	0%	2	10.0%	0	0%	28	77.8%	5	13.9%	2	5.6%	1	2.8%
부동산	9	14.1%	1	1.6%	16	25.0%	38	59.4%	13	32.5%	2	5%	2	5%	23	57.5%
언론	3	18.8%	0	0%	1	6.3%	12	75%	14	46.7%	2	6.7%	3	10%	11	36.7%
정치인	16	45.7%	1	2.9%	7	20.0%	11	31.4%	24	64.9%	0	0%	4	10.8%	9	24.3%
FTA	5	83.3%	0	0%	1	16.7%	0	0%	23	88.5%	1	3.8%	1	3.8%	1	3.8%
합계	165	49.3%	10	3%	41	12.2%	119	35.5%	210	66.2%	20	6.3%	22	6.9%	65	20.5%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대부분의 주제에서 정부 비판 성향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의 주제중 대운하와 민영화와 관련한 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제 모두에서 정부 비판 성향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언론을 주제로 한 글의 경우 정부 비판 성향이 18.8%에서 46.7%로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부동산 주제의 경우도 14.1%에서 32.5%로 늘어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

대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는 나름대로 공을 들이는데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부동산에 관한 정부 비판 성향이 증가한 것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글 중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88.5%에 이르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한편, 대운하와 민영화를 주제로 한 글의 경우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정부 옹호 성향의 글이 두 주제 모두 1개도 없었는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옹호 성향 글의 비중이 대운하는 20%, 민영화는 13.9%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켜보며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온라인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가장 빈도가 많았던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와 관련된 주제의 글의 성향을 살펴보았다. <표 20>에서 보듯이 두 주제가 모두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쇠고기를 주제로 한 글은 정부 비판 성향이 61.9%였고,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글도 정부 비판 성향이 61.8%로 거의 비슷하였다. 정부 옹호 성향과 중립 성향도 엇비슷하였다. 때문에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 관련한 글의 성향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美쇠고기와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 글들의 성향

글의 성향	미국 쇠고기		촛불집회		쇠고기 + 촛불집회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정부비판	104	61.9%	115	61.8%	219	61.9%
정부옹호	21	12.5%	28	15.1%	49	13.8%
중립	22	13.1%	20	10.8%	42	11.9%
기타 / 판단불가	21	12.5%	23	12.4%	44	12.4%
합계	168	100%	186	100%	354	100%

이상을 종합해 보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와 촛불집회와 관련된 글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제 외에 경제와 관련된 글이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이나 이후에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언론, 이명박 대통령, 민영화, FTA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과 관련한 주제의 글들이 많아졌고, 그 글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이 높았다는 점은 쇠고기에서 시작한 정부 비판이 정부 정책 전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함께 같은 주제의 글이라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글이지만 댓글 등에 나타난 이용자의 반응은 좀 더 옹호적이었던 것에 반해, 협상 타결 이후에는 이용자의 반응도 비판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3)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토론 베스트 글의 작성목적과 근거 변화
 토론 사이트의 특성상 의견 / 주장을 위한 글이 당연히 가장 많았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작성 목적의 변화가 보인다. <표 21>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의견/주장 목적의 글이 487건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였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495건으로 전체의 58.2%로 그 비중이 16% 가량 줄어들었다. 대신 감정 토로, 경고 / 위협, 정보제공 목적의 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토론 베스트글 작성목적 변화

작성목적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감정토로	87	13.3	157	18.4
경고/위협	8	1.2	58	6.8
단순핍글	8	1.2	26	3.1
욕설/비방	0	0	2	0.2
의견/주장	487	74.5	495	58.2
정보제공	64	9.8	113	13.3
합계	654	100.0	851	100.0

감정토로 목적의 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13.3%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협상 타결 이후 18.4%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경고 / 위협 목적의 글도 협상 타결 이전에는 1.2%로 비중이 작았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6.8%로 확대되었다. 정보제공 목적의 글도 그 비중이 3.5% 늘어났다. 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와 촛불집회 관련한 주제의 글들의 작성 목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표 22>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 주제 글의 작성 목적

		미국 쇠고기	촛불집회	쇠고기+촛불집회
감정토로	빈도	29	50	79
	비중	17.3%	26.9%	22.3%
경고/위협	빈도	15	12	27
	비중	8.9%	6.5%	7.6%
단순핍글	빈도	6	6	12
	비중	3.6%	3.2%	3.4%
욕설/비방	빈도	1	1	2
	비중	0.6%	0.5%	0.6%
의견/주장	빈도	79	90	169
	비중	47.0%	48.4%	47.7%
정보제공	빈도	38	27	65
	비중	22.6%	14.5%	18.4%

<표 22>에서 보듯이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글들의 작성목적은 살펴보면, 전체 토론 베스트글의 작성목적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목적의 글의 비중이 높다. 특히, 촛불집회 주제 글의 경우는 감정토로 목적 글의 비중이 26.9%로 전체 비중인 18.4%에 비해 8%이상 높다. 이는 촛불집회를 다녀온 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목적의 글들의 대표적 예가 촛불집회 주제의 감정토로 목적 글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6월 1일에 등록된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²⁷⁾라는 제목의 글이다. 글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본다.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 또 방패로 찌고 발로 차고 때립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겠자고 스크럽을 짠 사람들을 왜 또 때립니까... 도대체... 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합니까?. 몸은 정말 물에 젖은 스폰지 같았지만... 그아이는 실명은 았했을까.. 맥이 약하던 그아이는 회복이 되었을까... 피투성이 여자아이는... 뇌출혈은 아이였

2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36813>

을까... 괜찮을런지... 온갖 걱정... 잠이 쉬이 오지 않더군요...”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글 중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느낌을 쓴 글이다. 이는 아래 <표 24>처럼 개인경험을 근거로 쓴 글이 많아진 것파도 이어진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글의 경우는 감정으로 목적은 17.3%로 전체 비중보다 낮지만, 정보제공 목적의 글이 22.6%로 전체 비중인 13.3%보다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광우병 등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제공하는 글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와 관련된 글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성목적 특성이 전체 작성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론 베스트 글의 작성 근거를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크게 늘어났다. <표 23>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인터넷을 근거로 쓴 글은 3.7%에 불과하였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17.3%로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개인 경험을 근거로 쓴 글은 협상 타결 이전 32.3%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21.9%로 그 비중이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의견 기사를 근거로 작성한 글의 비중도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아고라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늘어났음을 알려준다.

<표 23>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토론 베스트글 근거 변화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개인경험	211	32.3	186	21.9
공표된 사실	286	43.7	357	42.0
의견기사	131	20.0	134	15.7
연구논문	2	0.3	27	3.2
인터넷	24	3.7	147	17.3
합계	654	100.0	851	100.0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은 토론 베스트글 중 가장 많은 주제인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 관련한 글의 근거와는 차이가 난다. 특히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글의 작성 근거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24>에서 보듯이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글의 작성 근거는 개인경험이 46.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글 중 작성 목적이 감정토로였던 글의 비중이 26.9%였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공표된 사실을 근거로 쓴 글은 24.2%에 불과해 전체 비중인 42%에 비해 상당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견 기사를 근거로 쓴 글의 비중도 6.5%에 불과해 전체 비중인 1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의 경우 언론의 보도나 알려진 사실보다는 개인 경험이나 인터넷 등을 근거로 쓴 글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쇠고기를 주제로 쓴 글의 경우는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비중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중과 엇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쇠고기 관련 주제 글의 근거에서 연구논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쓴 글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표 24>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 주제 글의 작성 근거

	미국 쇠고기		촛불집회		쇠고기 + 촛불집회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개인경험	35	20.8	86	46.2	121	34.2
공표된 사실	59	35.1	45	24.2	104	29.4
의견기사	35	20.8	12	6.5	47	13.3
연구논문	9	5.4	2	1.1	11	3.1
인터넷	30	17.9	41	22.0	71	20.1
전체	168	100	186	100	354	100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글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촛불집회를 주제로 하는 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또, 토론 베스트글들의 작성 근거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공표된 사실이나 의견 기사보다는 인터넷의 정보를 근거로 쓰는 글의 비중이 높아졌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의 경우 언론의 보도나 알려진 사실보

다는 개인 경험이나 인터넷 등을 근거로 쓴 글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아고라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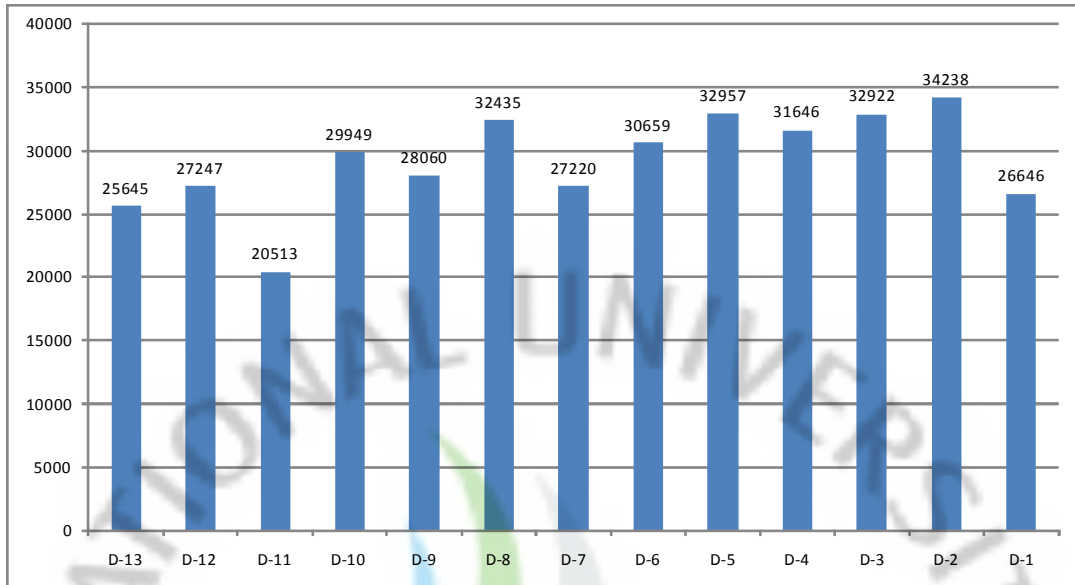
그동안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개적 공론장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고립된 모임과 토론의 마당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봤듯이 철저히 개인경험에 바탕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 놓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나친 내적분화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과편화된 공중이 하나의 장으로 모인 것이다. 그렇게 모인 공중이 공론장을 형성해 현실 세계와 비슷한 대면적 상호작용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실 세계를 매개로 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집회 현장에 ‘아고라’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 스스로를 ‘아고리언’으로 칭했던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의 역할은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고립된 모임에 간혀 의사소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1)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 아고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우선 아고라 사용량에 가장 큰 변화가 온 시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별로 아고라 사용량을 산출하였다. 그 중 가장 변화를 잘 나타내는 토론 게시글 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4월 18일을 기준으로 1주단위로 분석한 결과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주별 토론 게시글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D-2 주로 4월 4일부터 4월 10일이다.

<표 25>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주별 토론 게시글 수



<표 25>에서 보듯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급격한 변화라고 할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D-11주가 가장 적는데 이 시기는 2월 1일부터 7일로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게시글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눈에 띄는 것은 D-8주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다. 그 전주와 그 다음주에 비해 게시글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D-2주와 D-8주의 일별 게시글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6> D-11주와 D-2주의 일별 토론 게시글 수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전체	평균
D-11주	5103	4121	3602	5367	4890	5135	4217	32435	4634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전체	평균
D-2주	4346	3489	3423	3862	5245	7311	6562	34238	4891

<표 2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D-11주에는 2월 25일과 2월 27일, D-2주에서는 4월 8일~10일까지의 기간이 다른 날에 비해 게시글 수가 많다. 이 해당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날이고, 2월 27일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날이다. 다음으로 해당일에 산출된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27> 2월 25일과 27일의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방	주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2월 25일	이대통령 취임으로 본 향후 한국경제	경제	경제위기	정부비판	의견/주장	의견기사
	육먹을 각오로 쓰는 취임연설 비판	경제	대통령	정부비판	의견/주장	의견기사
	7개월의 택시운전을 그만두면서	자유	사건사고	판단불가	감정토로	개인경험
	이명박 정부의 뻔뻔한 국무위원 내정자들	자유	장부조작개편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부채내각 억울하면 제도를 바꾸라	자유	장부조작개편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부적격 장관 내정자들 - 왜 이직사퇴 않고 있나	자유	장부조작개편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원자재가격 오른 이유와 물가에 미칠 영향	경제	물가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2월 27일	봄에 땅가질 부동산, 서민 피해 없어야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의견/주장	개인경험
	'일제고사 부활'이 뭐가 문제인가	교육	교육	정부옹호	의견/주장	개인경험
	당신이 노무현 지지자인걸 부끄러워하라	언론	노무현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오세훈의 특별분양법, 특별임대법으로 바뀌나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중시하락과 부동산하락은 엄연히 다르다	경제	경제위기	판단불가	의견/주장	개인경험
	달러가치하락이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경제	경제위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삼성비자금문제, 단지 삼성만의 잘못?	경제	삼성	판단불가	의견/주장	개인경험
	앞으로 5년, 거품경제가 우려됩니다	경제	경제위기	정부비판	의견/주장	개인경험
	땅을 사랑했다던 내정자 기사의 댓글을 보고	정치	정부조작개편	정부비판	의견/주장	의견기사
	이쯤해서 문제 내정자들 바꾸는게 좋다	정치	정부조작개편	정부옹호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이제 한국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사회	GMO	정부옹호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표 27>을 보면,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일에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된 글 7개 중 5개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었다.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글이 2개였고, 장관 내정자에 관한 글이 3개로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이날 산출된 토론 베스트글의 성향은 7개 중 5개가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2월 27일에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된 글은 11개였는데 그날 화제가 되었던 장관 내정자 논란에 관한 글은 2개에 불과하고 경제위기와 부동산과 관련한 글이 5개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위 18개의 글 중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것은 “육먹을 각오로 쓰는 취임연설 비판”²⁸⁾이란 제목의 글이었다. 글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본다.

2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3887>

“뭘, 그렇다고 총선서 찍어 줄 것도 아닌데 좀 살살하시지요. 중소기업과 재래 시장에 그 것 다 퍼다 준다나.. 하여간 통은 통입니다. 물가 잡히겠네요. 원재료 값 다 아는 정통 상인출신이라나.. 허긴 세멘 한 포대 값하며 뭘 모르는 것 있겠어요. 백미..모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아고 배 아퍼 썸통이다.”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축하의 내용보다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경제위기 주제글의 사례에서와 같이 댓글의 반응은 글의 내용과는 또 다르다. 대략 반반 정도로 갈려 글 내용을 비판하거나 동의를 표하고 있다.

다음으로 4월 8일~10일의 기간의 토론 베스트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4월 9일은 총선이 있던 날이다. 대부분의 토론 베스트글들이 총선을 다루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4월 8일에는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된 7개 중 5개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2월 25일과 27일의 특성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의 성향은 정부 비판적인 것이 1개, 정부 옹호 성향이 1개, 나머지 판단이 불가한 것이 5개이다.

<표 28> 4월 8일~10일의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방	주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4월 8일	삼성 임원평균 연봉 150억원 기사읽고	경제	양극화	판단불가	감정토로	의견기사
	하락론자들이 바라는 집값 하락시점	경제	부동산	정부옹호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부동산 거품 있어도 반드시 사야 합니다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페트병 수돗물시대를 축하하며	경제	선거	정부비판	정보제공	공표된사실
	거품집값 5년내 30-50%까지 폭락할것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부동산폭락 위기는 한번 지나갑니다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정보제공	공표된사실
	총선후 정부가 내놓을 강북 집값대책	경제	부동산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4월 9일	총선 전날 우주인 발사, 대통령은왜	경제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의견기사
	썰렁한 투표소, 총선때 놓친 주요이슈	경제	선거	정부비판	감정토로	개인경험
	총선후 대한민국 서민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경제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옥망'과 타협한 서울시민들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4월 10일	의보민영화-중산층의 심각한 몰락 가져온다	경제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고통 모르는 20대들, 당해봐야 정신차릴까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인터넷
	MBC 최일구 앵커의 빠있는 총선인터뷰	자유	선거	정부비판	정보제공	의견기사

투표 못한 20대를 위한 20대의 변명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개인경험
18대총선, 나눠먹기로 회귀한 못한 국회의원들	정치	선거	중립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김근태 낙선보며 느낀 도봉구 바보들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문국현 지지자인 저는 웃을수가 없습니다	자유	선거	판단불가	감정토로	개인경험
아파트값 때문이라고 왜 솔직히 말못합니까	경제	선거	정부비판	감정토로	공표된사실
4·9총선의 명암-당선자들에게 바란다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취직공부하느라 선거 못했다는 20대들에게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인터넷
한나라당 험난한 진로-대통령 나설 때 아닌가	자유	선거	중립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노원구 홍정욱 당선-존경받을 인물인가	자유	선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총선이 실시된 4월 9일 이후 토론 베스트글은 모두 선거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4월 9일과 10일 산출된 토론 베스트글은 모두 16개인데 이중 정부 비판 성향의 글이 13개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월 25일의 토론 베스트글 7개 중 5개가 정부 비판 성향이었던 것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총선을 주제로 한 토론 베스트 글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은 “고통을 모르는 현재의 20대, 당해 봐야 정신차릴 듯”²⁹⁾이란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 역시도 앞서 살펴본 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인용할 필요 없이 한나라당 승리에 대해 비판적인 글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게시글에 붙는 댓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님은 그렇다고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날건가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20대 책임만이 아닙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서로 편을 갈라 진행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기 이전에는 시기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아고라 사용량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 총선 등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그 사용량이 아주 크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많이 소비된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도 국가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주로 얘기하고 소비되는 내용들은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 때 소비되는 글들의 성향이 정부 비판적인 것이 많았다는 점은 아고라 사용자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기 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요약하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2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5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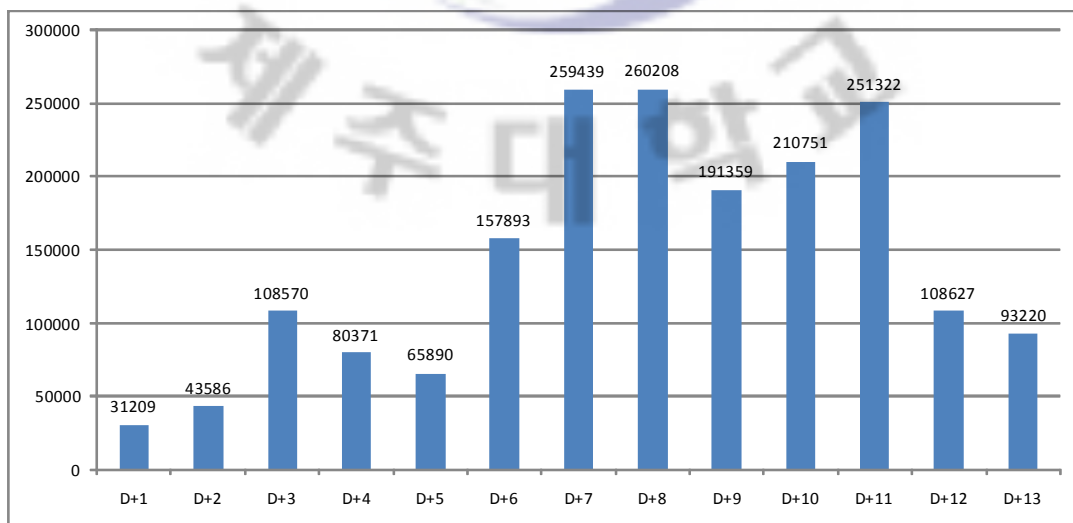
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고, 일정한 흐름 속에서 서로 글을 쓰고 읽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5일간의 데이터만 대표로 뽑았지만, 경향을 읽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도 보였다. 토론 사이트의 참여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1차 참여로 가장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는 행위는 2차 참여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소극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1차 참여로 인한 게시글의 경우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이 대부분이었지만, 2차 참여 결과인 댓글에서는 게시글보다는 일방적 성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토론 사이트의 적극적 참여자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1차 참여자보다는 더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2차 참여자들은 정부에 비판적 성향과 그에 반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아고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표 1>에서 봤듯이 아고라의 사용량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상세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주별로 토론 게시글 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표 29>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주별 토론 게시글 수



<표 29>에서 보듯이 아고라의 토론 게시글 수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는 주에는 오히려 이전 주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게시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D+3주로 5월 2일~8일이다. D+4주부터 게시글 수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D+6주에는 그 전주보다 게시글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해 D+8주까지 정점에 이르고 있다. D+10주, D+11주에 다시 증가한 게시글 수는 D+12주부터는 그 수가 다시 줄어든다. D+7주와 D+8주가 거의 비슷하게 가장 게시글 수가 많았던 기간이었다. 이중 게시글 수가 급격히 증가한 D+3주, D+6~8주, D+10~11주의 일별 게시글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0> D+3주, D+6~8주, D+11~12주의 일별 토론 게시글 수

D+3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전체	평균
	16005	14789	15029	16498	14977	17279	13993	108570	15510
D+6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전체	평균
	10018	11884	18700	26524	27322	29314	34131	157893	22556
D+7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전체	평균
	30846	29208	53430	38087	37544	34392	35932	259439	37063
D+8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전체	평균
	40284	40319	47040	33598	35126	36789	27052	260208	37173
D+10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전체	평균
	30034	26184	23847	25863	29576	35340	39907	210751	30107
D+11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전체	평균
	39805	37800	41714	40269	35337	34828	21569	251322	35903

<표 30>을 보면 D+3주에서는 게시글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5월 7일에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D+6주를 보면,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게시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게시글 수는 D+7주인 6월 1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6월 2일부터 다시 감소하던 게시글 수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증가세를 보인다. 이후 소강 상태인 게시글 수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한다.

이렇듯 게시글 수가 증가세를 보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하면, 우선 5월 7일은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 날이었다. 5월 25일은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 처음으로 도로 점거를 한 날로 29일까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29일 정부에서 쇠고기 고시 발표를 하였다. 6월 1일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을 전경이 군화발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날로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날이다. 6월 6일부터 게시글 수가 다시 증가하는데 이 날은 8일까지 3일 연휴를 맞이하여 촛불집회 주최측에서 72시간 연속 집회를 시작한 날이다. 6월 25일에 농식품부에서 쇠고기 고시를 의뢰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게시글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6일 고시가 발효되었다. 촛불집회 주최측 간부가 구속되면서 게시글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월 30일 천주교 사제단이 서울 도심에서 시국미사를 갖으면서 정점을 찍고 게시글 수는 감소세로 들어섰다. 이상을 통해 보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아고라 사용량의 증가에 결정적인 계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게시글 수가 급등한 기간 중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날을 하루씩 선택하여 해당일의 토론 베스트글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 5월 7일 토론 베스트글을 살펴보면, 총 12개의 글 중 11개가 내용상 관련이 있는 글들이었다. 11개 중 정부 비판 성향이 7개였고, 중립 성향이 4개였다. 작성 목적은 주로 정보제공이 3개, 감정토로가 2개, 의견/주장이 5개, 단순평글이 1개였다. <표 31>의 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아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글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표 31> 5월 7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방	주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5월 7일	美쇠고기 청문회, 이영호 의원 PT자료	자유	쇠고기	중립	정보제공	공표된사실
	"촛불집회는 정치적이면 안된다"는 이들에게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토로	개인경험
	청문회보니 왜 촛불시위하는지 알겠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美쇠고기 청문회에서 '경추우남 의원 보고	정치	쇠고기	중립	의견/주장	의견기사
	조갑제, 2만학생과 주부들이 범법자인가	정치	촛불집회	중립	의견/주장	의견기사
	고이 본 쇠고기 청문회 한마디로 웃겼습니다	경제	쇠고기	정부비판	감정토로	인터넷
촛불집회 우리 10대들 장난치는거 아닙니다	경제	촛불집회	정부비판	의견/주장	개인경험	

저소득층 세금받아 부자들 세금 내려준다니	자유	세금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민노당 강기갑 의원, 농림수산위에 일침	정치	쇠고기	판단불가	단순평글	의견기사
촛불집회 참가하는 저희, 개념있습니다	경제	촛불집회	정부비판	의견/주장	개인경험
호주 교민 한의사, 광우병을 말합니다	경제	쇠고기	중립	정보제공	공표된사실
'미국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지' 발언듣고	경제	쇠고기	정부비판	정보제공	의견기사

글의 근거를 살펴보면 전체 11개 중 의견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 4개, 공표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4개로 가장 많다. 또, 인터넷을 근거로 작성한 글도 1개에 불과하다. 앞서 <표 24>에서 살펴 봤듯이 쇠고기와 촛불집회를 주제로 하는 토론 베스트글의 근거 중 의견 기사의 비중은 13.3%였다. 인터넷을 근거로 해 작성한 글의 비중은 20.1%였다. 연구방법에서 밝혔듯이 공표된 사실에는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포함된다. 아고라 사용량이 급등하게 되는 1차 계기인 쇠고기 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언론 보도에 좀 더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표된 사실을 근거로 한 토론 베스트 글 중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것 하나를 인용해 본다. “청문회에서 촛불 문화제의 절박성을 깨달았습니다”³⁰⁾라는 제목의 글이다.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보십시오. 어제 기자회견과 오늘 국회 청문회를.. 내용도, 자료도, 사람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도 기자무시, 국민무시 하던 답변자들이 오늘은 꿀떡은 병어리양 변명과 살 길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기자의 권력이 무섭다지만 그래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만 못하나 봅니다. 어제는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서 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실토하니.. 이래서 우리는 촛불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용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다. 중간 중간 자신의 느낌을 섞어서 전달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표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 의견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간다. 도로 점거 등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이어지던 기간인 5월 29일에 산출된 토론 베스트글 제목을 보면 5월 7일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5월 7일에

3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43469>

장의 글보다 많다.

6월 1일 토론 베스트 글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59쪽에서 이미 인용한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라는 글이다. 이 글은 앞서 살펴 봤듯이 자신이 집회현장에 참석한 내과의사라고 밝힌 작성자가 집회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다룬 글이다. 작성자는 “당신들때문에 잠이 쉬지 오지 않았습시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시다.”라며,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들을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 댓글도 거의 대부분이 작성자에 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토론 사이트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찬반이 대립할 때 토론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글에는 토론이 전혀 없고 토론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조금 확대해석 하자면, 사회적 경계를 허물 것으로 평가받던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표 33> 6월 1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방	주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6월 1일	우리 아빠가 지하취조실에서 이뿔낸 민주화예요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개인경험
	구글 어스로 본 현재 시민 경찰 대처도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정보제공	인터넷
	MB 못한 시범대생 주장 반박해 주세요	자유	대통령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정선화박석순조선 그 침울수 없잖카.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의견기사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울부짖는 시민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정보제공	개인경험
	한중련 학생이 진경 어머니들께 드라는.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개인경험
	과격해진 촛불시위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옹호	의견/주장	인터넷
	금요일에 연행된 예비군 오늘 복귀했습니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개인경험
	폭력 조장하는 정부 있는한 국민은 저항한다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인터넷
	멕시코 수십만명 시위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정보제공	개인경험
	시민요구에 대한MB의 답변은 물대포였다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경고/위협	공표된사실
	MB 바른 대통령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회	대통령	정부비판	경고/위협	인터넷
	어머니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개인경험
	한국 기름값은 왜 실시간으로 오르는지 의문	경제	기름값	판단불가	의견/주장	개인경험
	'국민에게 행복하라는 홍준표 의견이 옳다	자유	촛불집회	중립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현장에서 여학생 치료했던 내과의사입니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감정도로	개인경험
	겁 없이 자꾸 판 키우는 정부 관계자에게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경고/위협	공표된사실

또, 글의 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글들이 촛불집회를 주제로 쓰고 있다. 광우병 등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주제는 1개도 없다. 여론의 방향이 촛불집회로 완전히 변화한 것이다. 하지만, 과격해지는 촛불집회에 대해 우려하는 글도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돼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 베스트 글이 속한 토론방을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7개의 글 중 경제 토론방에 소속된 글은 1개에 불과하다. <표 14>에서 봤듯이 전체 토론 베스트글 중 경제 토론방 글이 차지한 비중은 48.4%였다. 대신에 자유 토론방의 글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제 토론방의 글이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72시간 연속 촛불집회가 마무리되는 6월 8일에 이르면 여전히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글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를 옹호하는 성향의 글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글의 근거도 개인경험보다는 인터넷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의견/주장의 글도 다시 많아진다. <표 35>에서 보듯이 “촛불 집회에 회의감 드는 이유” “실패한 대통령 바라는 것 아니다” “격렬 시위자들 옆에서 보니” 등 6월 1일 토론 베스트글에서 보였던 일방적인 촛불 옹호 흐름이 바뀌고 있다.

<표 34> 6월 8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방	주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6월 8일	경제 모르는 일반시민이 본 고유가 종합대책	경제	기름값	정부비판	감정토로	공표된사실
	촛불 집회에 자꾸 회의감 드는 이유	사회	촛불집회	정부옹호	의견/주장	인터넷
	미국이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	경제	쇠고기	판단불가	정보제공	인터넷
	촛불은 실패한 대통령 바라는 것 아니다	정치	촛불집회	중립	의견/주장	인터넷
	MB의 책임전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할말인가	경제	대통령	정부비판	감정토로	공표된사실
	美교포가 생각해 본 '쇠고기 과당' 해법	경제	쇠고기	정부옹호	의견/주장	의견기사
	드림콘서트로 본 관문화-이대로 좋은가	문화	연예인	판단불가	감정토로	개인경험
	전경버스 부순 격렬시위자들 옆에서 보니	자유	촛불집회	중립	정보제공	개인경험
	이직도 재협상 요구의 원인 파악 못하신 MB께	자유	대통령	판단불가	감정토로	인터넷
	시위대가 청와대로 갈 필요 없는 이유	정치	촛불집회	정부옹호	의견/주장	인터넷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야 하는 이유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의견/주장	인터넷
	청와대의 인적쇄신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경제	개각	정부비판	경고/위협	의견기사
집회중 '돌발폭력', 누군가 과충은 함정인가	사회	촛불집회	판단불가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 “촛불시위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이유

는?”³¹⁾이란 제목의 글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글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본다.

“최근 촛불시위대의 3가지 현상에 따른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새로운 방향(평화적시위)를 잡고, 더욱 많은 국민의 호응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며, 본래의 요구를 명확하게 견지하며(쇠고기나 탄핵이나), 가능한한 전경과의 유혈사태를 피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이 한몸 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시위대는 전경과의 무력충돌로 부상을 입든 어떻게 되든 상관 없겠지만, 스스로가 “범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시위대가 범국민적 전경과의 무력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는가?”

직접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한 작성자는 토론 사이트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네티즌의 의견을 수집하여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여 글을 썼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추천수는 483개인데 반해 반대수는 2,458개로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글 내용이 욕설 / 비방도 아니고 촛불집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경과의 무력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댓글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작성자의 의견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 등 2차 참여에 의해 대체적으로 사용자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베스트글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즉, 대세에 어긋난 게시글이 토론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대세가 확실한 상황에서 그 글이 2차 참여 활동에 의해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됐다는 점은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표 33>에서 봤듯이 촛불집회가 격화되던 시기에 감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촛불집회를 주제로 하는 글들도 감정 토로가 아닌 의견/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6월 1일 토론 베스트글 17개중 8개가 감정 토로 목적의 글이었지만, 6월 8일 토론 베스트글 13개 중 감정 토로 목적의 글은 4개이지만 의견/주장 목적의 글은 6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3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85832>

하지만, 6월 26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의 성향도 다시금 변화한다. 고시 강행에 실망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이 토론 베스트로 많이 산출되었다. 의견/주장이 줄고 경고/위협성 글이 많아졌다. 특이한 것은 감정 토로 목적의 토론 베스트글이 1개도 없다는 점이다. 또, 글의 근거도 공표된 사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개인경험을 근거로 쓴 글은 1개도 없다. 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논리로 사안에 접근하는 쪽으로 온라인 여론의 동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표 35> 6월 26일 토론 베스트글 특성

작성일	글 제목	토론 방	주 제	글의 성향	작성목적	글의 근거
6월 26일	우리나라 촛불집회에 긴장하는 호주 축산업계	정치	촛불집회	중립	정보제공	의견기사
	정부는 식당과 한우농가 위한 대책 마련하라	경제	쇠고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美축산업 위해 한국농업 압살하는 이명박정권	경제	쇠고기	정부비판	경고/위협	공표된사실
	부동산 투기 부추겨 국민전환하라는 MB정부	경제	부동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한승수 총리 담화문 일일이 반박해 봅니다	정치	쇠고기	정부비판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경제	부동산	중립	의견/주장	공표된사실
	고시강행후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다	자유	촛불집회	정부비판	경고/위협	인터넷
	쇠고기 마무리 짓고 경제 살라지는 대통령께	경제	대통령	정부비판	경고/위협	공표된사실
	촛불집회,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할 때	정치	촛불집회	판단불가	의견/주장	인터넷
촛불집회 강경진압 민심불안만 가중 시킴뿐	정치	촛불집회	정부비판	경고/위협	공표된사실	

한편, 토론 베스트글이 속한 토론방을 살펴보면, 다시 경제 토론방에 소속된 글이 많아졌다. 아고라 게시글 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6월 1일에는 토론 베스트글 17개중 11개가 자유 토론방 소속이었는데, 6월 26일에는 자유 토론방 글은 1개에 불과하다. 경제 토론방에 소속된 글이 10개중 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미사로 촛불집회가 진정되기 시작한 6월 30일에 이르면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의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물론, 촛불집회를 주제로 하는 글이 가장 많지만, 경제위기, 부동산, 한일터널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감정토로나 경고/위협 성의 글은 줄고 의견/주장을 하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토론 베스트글들의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아고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1차 계기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아고라’로 대표되는 온라인 여론 공간으로의 급격한 참여 증가는 쇠고기 청문회가 1차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한 사건 때 정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6월 6일부터 시작된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때도 아고라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계기로 아고라의 사용량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아고라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토론 베스트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던 아고라 사용자들은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부터는 주로 집회와 관련한 개인 경험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이 주를 이뤘지만,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한 내용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었다. 또,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기에는 일방적인 촛불 옹호 글만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글들도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수는 적었지만,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아내고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서로를 매도하고 단순 욕설에 그치는 글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사용자의 추천수, 댓글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 2차 활동에 의해 선정되는 토론 베스트글에서 만큼은 다른 목소리도 걸러져 나왔다는 사실은 온라인 토론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2008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뒤이은 ‘촛불 집회’는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학자와 언론들은 ‘촛불’이 대중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발현된 새로운 감성과 상상력 그리고 생활정치와 정치적인 영역의 확대를 촉발시킨 ‘이정표적’ 사건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기형, 2008).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인터넷 공간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인터넷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김용철, 2008; 허태희·장우영, 2008; 송경재, 2008; 조화순, 2008; 이창호, 2008).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아고라’라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는 시위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담을 전달하는 온라인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뒤이은 촛불시위 기간에 왜 ‘아고라’라는 사이트가 주목을 받았는가를 분석해 온라인 여론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능한 실제로 벌어진 현상을 최대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 18일을 기점으로 전후 3개월씩 총 182일간 ‘아고라’에 올라온 토론 게시글 수, 댓글 수, 게시글 작성자 수, 처음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 수 등을 일단위로 수집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아고라’가 주목받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아고라에 올라온 게시글 수를 분석한 결과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하루 평균 4,177개의 글이 올라왔지만, 타결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466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약 5배 가량 상승한 수치였다. 토론방의 게시글을 1차 참여라고 한다면 2차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게시글에 붙는 댓글의 수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전에는 하루 평균

21,976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는 12,7105개의 댓글이 달려 약 6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의 수는 급증하였지만, 그 글에 대한 반응으로 달리는 댓글의 수도 글의 수에 비해 오히려 증가폭이 컸다는 점은 ‘아고라’에 올라온 글이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아고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주목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인터넷이라는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는데 고립의 두려움을 떨쳐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는 여전히 사람들이 대세를 좇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은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지만, 한 곳에 모여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능동적 존재가 보다 집중된 공간에 모여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새로운 공론장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게시물 작성자 수와 처음으로 글 쓴 사람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아고라에 작성된 글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그 글들을 일정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글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고라에 접속한 사람들이 단순히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떻든 글을 쓰기 위해 접속한 것이었다. 이는 토론 사이트에서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올라온 글을 읽고 사이트에서 나가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괜히 글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량만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아고라’에서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기간 ‘아고라’에 토론 베스트로 등록된 글 모두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먼저 글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와 촛불 집회 관련한 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 가장 많았던 경제위기와 부동산을 주제로 한 글은 쇠고기 협상 이후에도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주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고라 이용자들에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관련한 글은 시기에 상관없이 관심을 끄는 주제로 나타났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310개로 전체의 47.4%였는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518개로 전체의 60.9%를 차지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주제의 글이라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상 타결이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글이라도 댓글 등에 나타난 이용자의 반응은 타결 이후에 비해 좀 더 옹호적이었던데 반해, 협상 타결 이후에는 이용자의 반응이 비판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러한 토론 베스트글의 작성 목적과 글의 근거에도 쇠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변화가 있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의견/주장 목적 글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대신 감정 토로 목적의 글의 비중이 늘어났다. 또,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아고라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의 경우는 언론의 보도나 알려진 사실 보다는 개인 경험이나 인터넷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철저히 개인 경험에 바탕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 놓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매개로 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집회 현장에 '아고라'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 스스로 '아고리언'으로 칭한 이유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의 역할은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고라의 사용량과 토론 베스트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기 이전에는 시기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아고라 사용량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 총선 등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그 사용량이 아주 크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많이 소비된 아고라 토론 베스트글도 국가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주로 얘기하고 소비되는 내용들은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 때 소비되는 글들의 성향이 정부 비판적인 것이 많았다는 점은 아고라 사용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기 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줬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는 사용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 계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아고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1차 계기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을 군화발로 폭행한 사건 때 정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6월 6일부터 시작된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때도 아고라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계기로 아고라의 사용량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던 아고라 사용자들은 촛불집회가 격화되면서부터는 주로 집회와 관련한 개인 경험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들이 주를 이뤘지만,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한 내용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었다. 또,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기에는 일방적인 촛불 옹호 글만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글들도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수는 적었지만,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아내고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1차 참여라고 할 수 있는 토론 참여자의 게시글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이나 이후나 대체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는 2차 참여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2차 참여자들은 정부에 비판적 성향과 그에 반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에, 타결 이후에는 2차 참여자들의 성향도 정부 비판적인 성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듯 대세가 확실한 상황에서 대세에 어긋나는 게시글이 2차 참여 활동에 의하여 토론 베스트글로 산출했다는 점은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욕설/비방 등의 글이 토론 베스트글로 거의 산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온라인 토론 참여자들이 자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논의해 보면, ‘아고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이전부터 부동산, 주식 등 실제 자신의 경제 생활과 연결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그 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많았고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 것이다. ‘아고라’가 쇠고기 파동 이전에 정치 주제만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토론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아고라’가 형성됐다고 본다.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금의 ‘아고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엘레-노이만(1980)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념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이 곳에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온라인에서 여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고라’가 보였던 특성이라고 본다. 온라인에서 고립된 모임에 간혀 의사소통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매개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서로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능동적 수용자로서 주체적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공론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어찌보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아고라’에서 일어났던 현상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된 여론이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했다. 의제화, 재의제화 등의 활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미됐다면 완결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여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 보려고 하였지만,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토론 베스트글이라는 2차 수단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이다. 추천수, 조회수, 댓글수 등의 사용자의 활동 결과를 통해 산출되는 데이터이지만, 그것이 온라인 여론을 완벽하게 대표

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기나 대상을 조정해 다른 방식으로 분석한다면,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였지만, 대상 기간을 너무 넓게 잡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간을 좁히면서 토론 베스트글이나 사용량의 일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면, 지금의 결과보다는 실제적인 전개과정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사용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미디어 다음 측의 협조를 얻어 데이터를 습득하였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개된 범위 내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인데, 후속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를 다룬 선행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와는 다른 방식의 데이터 해석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1차 자료로써의 가치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재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후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상현 (2000).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제 14-1호, 7~40.
- 구교태 (2002). 웹 사이트 캠페인이 기존 뉴스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에 미치는 영향. 의제설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4호, 46~75.
- 권혁남 (2006). 『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년·김재영 (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통권 19-3호, 7~41.
- 김관규 (200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인간 관계와 현실 공간의 인간 관계의 비교. 『한국방송학보』 통권 16-1호, 73~109.
- 김규찬 (2006). 『인터넷 마녀사냥의 전개과정과 그 함의 : 2005년 ‘개똥녀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성태·오유원·박선영 (2007). 온라인 의제 파급자의 가치체계 연구 : 래더링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21-3호, 127~161.
-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의제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과 역의제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3호, 175~204.
- 김용철 (2008). 촛불시위의 배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한국정치학회 주최 『웹 2.0과 촛불시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 발표문.
- 김유정 (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규 (2003). 『미디어와 시민 참여』.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익현 (2008). 『뉴스 공론장으로서 블로그의 가능성 연구 : 대화의 복원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재영·최민재 (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회 세미나 ‘대선 관련 포털 뉴스 서비스 분석’ 발제문.
- 김재현 (1996).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장춘익 외 지음. 『하버마스의 사상』. 서울 : 나남출판, 19~62.
- 김학수·오연호(2003). 인터넷신문을 통한 일반 시민의 의제수렴 연구. 『한국언

- 론학보』, 제47권 4호, 60~81.
- 민경배 (2006).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운동』. 서울 : 한국학술정보.
- 박경숙·이관열 (2004). 정치적 이슈의 여론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8-4호, 271~305.
- 박경신 (2008).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언론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 발제문.
- 박선희 (1998).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04). 인터넷 정치뉴스의 이용 : 이용패턴과 이용자 특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436~463.
- 박성희·박정윤 (2006). 온라인 팬덤 커뮤니케이션 특성 연구 : 디시인사이드 스타 크래프트 갤러리의 임요환 관련 게시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이화여자대학교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박은미 (2005).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개인의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이수영 (2002).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의제 전개과정 : 일반 네티즌 공간과 참여 네티즌공간의 차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8호, 99~130쪽.
- 박재영·전형준·이규연·이진영 (2008). 황우석 사건의 교훈 : 기자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과학보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인식하는가?. 『한국언론학보』 제52권 2호, 226~253.
- 박주현 (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 의제파급 및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춘서 (2006). 『대안언론과 대항공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반 현·최원석·신성혜 (2004).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뉴스 미디어의 점화 효과 : 17대 총선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8-4호, 39

8~443.

- 배상은 (2003). 『인터넷 신문의 독자 간 상호 작용성 연구 : 상호 작용 기제와 공론영역 기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재 (2005). 포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의제설정 과정의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올바른 포털저널리즘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세미나 자료집.
- (2008). 인터넷 규제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 :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 발제문.
- 심재철 (2008). 신문광고 중단 소비자 운동 : 참아내기 어려운 압력에 대한 인내. 한국언론학회 주최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한계 긴급 대토론회’ 발표문.
- 오연주 (1996).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우병동 (2008). 뉴스보도의 객관성 문제 : 최근 광우병 사태의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한계 긴급 대토론회’ 발표문.
- 유세경 (1993). 여론과 매스 미디어. 한국언론연구원(편), 여론조사보도, ‘93연구서 21’.
- 윤성이·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웹 2.0과 촛불시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 발표문.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 총선연대 게시판 사이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14-2호, 109~150.
- 윤태일·심재철 (2003). 인터넷 웹 사이트의 의제설정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 194~219.
- 음수연 (2003).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인터넷 매체적 특성과 온라인 토론 참여자의 이슈에 대한 관여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건호 (2006). 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점화 이론 : 인터넷 매체가 수

- 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50권 3호, 367~392.
- 이기형 (2008). ‘촛불시민운동’과 ‘네티파워’ 그리고 ‘광장’의 정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주최 『포털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론장』 토론회 발표문.
- 이승선 (2008). 국내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주최 『포털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론장』 토론회 발표문.
- 이준웅·김은미 (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제50권 3호. 393~423.
-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제51권 3호, 358~384.
- 이창호·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 이현우 (2008).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 대표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 주최 『웹 2.0과 촛불시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 발표문.
- 이효성 (2006). 미디어 이용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효과 : 미디어 이용의 역동성 모델과 점화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1호, 285~307.
- 임중수 (2005). 포털 미디어 재매개에서의 뉴스소비 : 하나의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9-2호. 8~46.
- 임지택 (2003).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연구 : ‘인터넷 한겨레’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상현 (2000). 『정치여론의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수선·김유정 (2004). 온라인 신문의 의제 및 의제속성 설정 연구 : <조선닷컴> 과 <오마이뉴스>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302~329.
- 조재권 (1984). 『선전여론』 . 서울 : 박영사.
- 조화순 (2008). 사이버액티비즘과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 촛불시위 관련 사이트의 분석. 한국정치학회 주최, 『웹2.0과 촛불시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

래』 발표문.

- 차배근 (1999).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서울 : 나남출판.
- 최민재 (2006).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서울 : 한국언론재단.
- 최영 (2002).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6권 6호, 33~63.
- 한혜경 (2003). 여론 지각 매체로서 인터넷에 관한 연구 : 디지털조선과 오마이뉴스 독자 집단의 의사합의(false consensus) 지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7권 4호, 5~33.
- 홍성구 (2001). 『인터넷과 정치적 공론 영역의 복원 : 속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홍성민 (2004).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에 관한 연구 : 인터넷 토론사이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황용석 (2005). 포털 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포털저널리즘과 그 실제와 전망』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 황용석 (2007). 포털 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포털뉴스의 이용행태와 사회갈등』 세미나 자료집.

2. 해외문헌

- Campbell, H. (2007). Who's got the power? Religious authority and the Internet.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043-1062.
- Christopher D. Hunter (2002). Political Privacy and Online Politics : How E-Campaigning Threatens Voter Privacy. *First-Reviewed Journal of Internet*, 7-2. (http://www.firstmonday.dk/issues/issue7_2/hunter/index.html)
- Dennis McQuail (2006).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it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 Earl Babbie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9th edition*. Belmont : Wadsworth.
- Glynn, C. J. & McLeod, J. M.(1986). Public Opinion du Jour: An Examination

- of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 731~740.
- Habermas, J. (1990).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 나남.
- Jay David Bloter & Richard Grusin(1999). *Remediation : Understanding New Media*. 이재현 역(2006). 『재매개 :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Mark E. Kann & Jeff Berry & Connor Gant & Phil Zager(2007). The Internet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First-Reviewed Journal of Internet*, 12-8.(http://www.firstmonday.dk/issues/issue12_8/kann/index.html)
- McCombs, M. E., & Shaw, D. L.(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ew-Hill.
- Noelle-Neumann, E (1980). *The Spiral of Silence :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 Chcago & London :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 Pamela J. Shoemaker (1991).*Gatekeeping*. London : SAGE publications. 최재완 역(2001). 『게이트키퍼의 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Show, D. & McCombs, M. (1977).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issue :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St. Paul, MN: West Publishing.
- Stanley J. Baran & Dennis K. Davis (2006). *Mass Communication Theory : Fondations, Ferment, and Future 4th edition*. Belmont : Thomson Wadsworth.
- Sunstein, C.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ylor, D. G.,(1982). Pluralistic ignorance and spiral of silence . *Public Opinion Quarterly*. 46. 311~335.
- Walsh, L., & Barbara, J. (2006). Speed, international security, and "NewWar" coverage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89-208.

【ABSTRACT】

A Study On the USA Beef Syndrome and Development of Online Public Opinion - Focused on Mediadaum's Debate Site 'Agora'

Se-Uk Oh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Korea's hot issu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8 was USA beef syndrome and going through the following candle demonstrations, the 'agora', online debate site gained a lot of public attention. Many journalists and researchers noticed the 'agora' as an influential producer of public arguments. This study began with a question why the 'agora' attracted such a public attention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online public opinion in the 'agora'.

At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traffic in 'agora' during 6 months, before and after April 18th, when the beef negotiation compromised.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number of articles, replies, and the writers, especially the new writers per day.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new writers increased as well as the new articles, and the replies increased the more considerably after that day the negotiation confirmed. These findings present that lots of articles on 'agora' were continually read by people, and 'agora' played a role as an actual debate place.

Besides analyzing the quantity of users, this study examined the best articles to know the actual issues of 'agora' during the same time. As a result, articles critical to the government and contents based on the internet

informations increased after the 'beef agreement'. Also, description of writer's private experiences gained much more public sympathy.

Fin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e 'agora' attracted public attention after the beef negotiation because it had previously played a role as a sort of communication or discussion place on economic issues like real estate or stocks and so on. Having such a reliabilit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e 'agora' was able to gather much more people politically critical to the government after the 'beef agreement'.



Keywords : USA beef syndrome, candle demonstration, 'agora', online public opinion, internet debate.